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무료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새해지만 우리는 이맘때면 새출발로 마음을 다지게 된다. 그만큼 새로움이 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년 발심한다. 그리고 발심을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정진력이다. 정진하는 힘 때문에 갖가지 일을 잘해서 다 이룰 수 있게 된다. 작은 물도 쉼임 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이 정진행을 일으키면, 그 힘으로 일념(一念) 사이에 백만삼천대천세계를 부순 티끌 수만큼의 보살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고 한다. 얼마나 큰 힘인가. 그저 정축년 한해를 정진으로 일관함이다. 〈편집자 주〉

정진 앞에 못 이룰 일 없네

확고히 정진해 마음에 늘 번민하지 않는다면,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고 구하는 일이 달성될 것이다.
〈방불경〉

힘쓴다는 생각 없이 정진바라밀을 행하라. 힘쓰고 게으르다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반야경〉

보살은 쉬지 않는 정진, 더러움이 없는 정진, 물러섬이 없는 정진, 낮은 정진, 가 없는 정진, 광명에 넘치는 정진, 비견할 것이 없는 정진, 과過되지 않는 정진, 온갖 중생을 교화하는 정진, 옳은 도리와 그른 도리를 잘 분별하는 정진을 성취한다.
〈화엄경〉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다.
〈유교경〉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나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환경〉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으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으리라.
〈불반니환경〉

정진하는 사람이 정진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답게 보시하고 환희하는 마음을 얻고, 업과 업의 과보있음을 믿으면 이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보시니라.
〈증이함경〉

정진력을 수행해 성취해야 한다. 정진력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대승성무량수왕경〉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자기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곧 바르지 못한 일이다. 버리는 것이나 찾는 것이 다같이 더럽힘이다.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가는 정진이다.
〈선가귀감〉

생명사상 체험 사찰생태기행 15면
'97 신행 캘린더 11면
큰스님 수행한담—구암스님 8·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종립고교

정보화교육 소극적

인문계학생 84% 전산교육 소외

본지 13개 고교대상 '전산실태' 조사

지난 90년부터 지속된 정부의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일선 종립고등학교의 컴퓨터 시설과 전산교육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보교육의 커다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가 구랍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3개 종립고교에 대한 '전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용 전산실 1실 이상을 보유한 학교는 총 12개교(92%). 여기에는 전산교육이 가능한 펜티엄·486급이 61%설치돼 있으며 나머지는 전산교육에 부적합한 386급·286급·XT급 등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K고교(전북)와 같은 실업계 종립고교 3곳을 제외하면 전산교육이 가능한 486급 이상을 보유한 종립고교는 38%에 불과하며 정규전산교육을 이수한 교원은 6명(46%)에 그치고 있다. 또 10개 인문계 종립고교 중에서 9개교는 전산교육 피교육자를 '작업반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문계 종립학생의 84%가 최소한의 전산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배경에는 "현재 초·중·고교 전산실 시설투자에 주력하고 있어 운영지원금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교육청의 관리소홀과 "학교의 교실이 부족해 전산실을 신설할 수 없다"는 D고교(서울)의 경우처럼 전산교육에 대한 종립고교의 인식부족이 짙게 깔려있다. G고교(경기)의 경우 지난 91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XT급 컴퓨터 30대를 구입해 전산실을 개설했지만 현재 시설 노후로 인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종립고교의 전산교육 내용도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기초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종립고교 전산교육은 워드프로세서·스프레드시트(로터스)·데이터베이스 등의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 정보사회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정보를 통한 가치창조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종립고교의 전산교육이 정보교육으로 조속히 전환돼 종립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교육에 대한 불교 교육계의 인식과 재정 부족이 컴퓨터교육을 위탁·과외교육으로 치부하는 등 종립학생들을 정보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며 종립고교의 전산교육 실태를 지적한 일선 교사는 "산학연대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21세기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종립학생들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종립고교의 적극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본지의 전산실태조사결과 종립학교의 컴퓨터 시설과 전산교육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진선여고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북한동포 식량보내기 성금

10일 韓赤에 5천만원 전달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구랍 12일 창립이후 북한동포에게 식량을 보내기 위해 모금한 5천만원을 강영훈총재에게 전달했다. (성금내역 4면)

이날 전달식에는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에서 각각 모금한 2억3천만원도 함께 전달됐다. 운동본부 공동대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설날 전에 북한에 식량을 전달해 동포들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중립통해 정교분리 실현"

조계종 월하종정 신년하례서 당부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8일 가진 종단집행부 신년하례식에서 대통령선거는 정교분리 정신에 입각해 불교인으로서 엄정중립을 지켜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관련사진 4면〉

통도사 정변전에서 부방장 청하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통도사주지 월파스님 불교TV 사장 태응스님을 비롯 총무원 부장 및 포교부장 교육부장이 자리한 가운데 1시간여 치러진 신년하례식에서 월하스님은 이같이 강조했다.

월하스님은 또한 복지법인 보리수마을 이사장 시헌스님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입적을 애도하며, 스님이 추진했던 복지사업인 만큼 종단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대선에서의 엄정중립과 보리수마을의 원만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찰환경과 전통문화 보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불교관계법 개정을 통해 종단의 자주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율 사업 발표

20일 월주스님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 통해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월주스님은 '전법의 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 개발음의 사회화운동의 지속적 추진,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대선과 관련해 불교계의 중립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기업인 송재근씨 내정

상반기중 창립될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 기업인 송재근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중앙신도회장에 송씨를 내정하는 한편 임원인선 교구신도회 결성 등 상반기중 창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회장내정자로 알려진 송씨는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광화문 지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몇곳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중앙신도회의 근간이 될 교구신도회는 15일 현재 24개 교구 가운데 13개 교구신도회가 결성 또는 준비중이다. 조계종 각급신도회구성 추진실무단(단장 혜참 총무부장)은 15개 이상의 교구신도회가 구성되면 중앙신도회 창립을 본격화하며, 창립 전까지 20개 교구신도회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회장내정에 대해 일부 재가단체에서는 의외의 인물이라는 반응과 함께 신도회장을 총무원장이 지명하듯 하는 것은 개혁종단의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신도회를 장악하려는 총무원의 의도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경승단 창립 10주년

28일 세종홀서 법회

대한불교 경승단(총재 월주)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총재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스님을 비롯 김우석 내무부장관 환용하 경찰청장 등 종단, 경승 및 경찰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교육 시범사찰 조계종, 지역별 운영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신도입문 및 교육의 체계화를 '전법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하고 외국의 신도입문·교육사례를 수집하고 체계화방안을 수립, 지역별 시범사찰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포교원은 지난 8일 새해사업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도입문·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통일법요집〉의 보완 관찬, 신도교리교육 교재를 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신도교육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체계화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올해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또 '전법의 해'를 맞아 전법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조직간의 결속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포교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포교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3월중 개최되는 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본사 사령

이 창 호
㊎ 편집위원

정 성 운
㊎ 편집국 차장대우
(1997년 1월 1일자)
의원면직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임 연 태
취재3부 차장대우
(1996년 12월 28일자)

새 기획 法數로 배우는 불교 6면

最大의 민영제철소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둔 당진제철소 B지구


북한경유, 중국에 첫 수출된 한보의 핫코일

당진제철소내 건설될 무공해 부생가스 발전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最大의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평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철강의 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最初의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最尖端 기술 국내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열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렉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철강을 만듭니다.

最高의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

사 설

불국토 향한 새로운 시작

올해는 그 동안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민족문화 유산의 수호와 포교의 활성화가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해'로 지정했다. 한국 최대의 종단인 조계종은 '전법의 해'로 정하였고, 청소년포교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효사상실천의 해'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가 '문화유산의 해'를 선포한 것은 불교계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과 사찰환경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진다. 그 동안 불교계는 파괴되어 가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많은 전통사찰이 자리잡고 있는 국립공원안에 스키장, 콘도미니엄, 리조트, 연수원 등이 마구잡이로 허가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중심부인 사찰환경의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당국은 한 해를 열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를 새로운 각오로 실천하길 기대한다.

첫째,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는 문화정책을 수립·집행 해야한다. 97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알기사업(13건), 문화유산 찾기사업(7건),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12건)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문화유산찾기사업을 빼놓고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대부분이다. 문화유산지키기 운동과 문화운동의 시민운동적 성격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자원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의 보존의 중요성과 문화의식의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되살리기 못지 않게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교육그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파괴법이라는 비난이 많다.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불교관계법령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의 산실인 불교문화를 제대로 지져주지 못하는 '악법'적인 내용이 많다는 지적은 한 두번 받은 게 아니다. 이러한 악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진정으로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의 민족문화 유산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게 문화유산관계법령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의 해를 선포한 이상 각종 개발정책으로 빚어진 문화유산파괴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주고속철도 통과 건설, 경주 경마장 건설, 해인사 골프장 건설, 봉은사 앞 아셈(ASEM) 초고층건물 건설 등의 계획은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문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지은 그 동안의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불교계의 각오도 새로워야 한다. '전법의 해'로 선포된 이상 다양한 전법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좀 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사회 속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문화유산 지키기'를 위해 보살도를 실천할 때 전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서원을 세우자. 효사상 실천운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심어주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불사도 더욱 열성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류복지 정토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자.



◇ '문화유산의 해'는 위로부터의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잔치마당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사진은 본지 주최 경주남산 순례 모습).

열린마당

지역문화원장·향토사학자에게 듣는 '문화유산의 해'에 바란다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지역 문화원장 및 향토사학자들은 올 '문화유산의 해'를 그동안 우리의 문화재를 방치하고 소홀히 해 온 정부와 국민 모두 각성을 촉구하는 반성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문화재의 올바른 전승이야말로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반만년 역사에 걸맞는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문화유산의 해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지역별 전통마을 지정

백산스님(남양향토사연구회장)=정부가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고 조직위원회 및 집행부서까지 설치하고 1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니 향토사와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한 시민으로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른다. 조상이 남긴 훌륭한 일과 생활사의 자취가 거의 말살되어 가는 참나에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이 구호가 그 어떤 구호보다 의미있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여나 이 해가 가기도 전에 선거 태풍에 밀려 이 구호가 사라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 따라서 허황된 구호보다는 가까운 주변의 문화재를 내 몸같이 아끼면서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각 지역마다 전통마을과 전통학교를 둔다든가 국립지리원의 기능을 강화해 문화재 표시 하나라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발굴·보존 균형있게

이인호(익산문화원장)=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그동안 발굴에만 치중한 나머지 발굴된 것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정작 발굴해야 할 것을 방치해 둔 사례도 많았다. 특히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발굴·보존되지 않은 점도 이번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우리 지역에는 교사들과 향토사학자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고적선양회가 있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제대로 활동을 펴기 어려운 상태다. 지역에서 문화재를 사랑하고 가꾸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여건조성도 필요하다.

올해 익산에서는 전국민속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같은 행사를 통해 지방 문화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독특한 지역문화 발굴

양중해(제주문화원장)=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정리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훌륭한 우리 전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문화유산의 해에는 우선적으로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함께 이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우리 문화원은 제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무가(巫歌·무속제례시 무당이 낭송하는 서사시)를 채록 수집하고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유형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와 각급 단체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돼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시·관리에 정성쏟아야

김보현(백제문화개발원장)=우리에게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하고도 값진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살피고 가꾸어서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부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격한 관리자로서, 언론기관은 문화재의 소중함과 파괴현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도자로서, 일반국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정성껏 보살피고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번 파괴된 문화재는 현대의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감시, 그리고 관리에 우리 모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해의 첫번째 과제라고 본다.

단발성 문화행사 지양

신현정(가평문화원장)=문화유산의 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형태의 단발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그래서 문화재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해가 돼야 한다. 문화재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지방문화재 창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평의 경우 태고 보우스님 열반지 등의 사적지를 비롯해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것들이 10여건이상 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각 지방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선정,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넓히고, 문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 또한 문화유산의 해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옛것 통해 미래열자

김택규(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회장)=일제강점기 이후 얼마나 많은 지상·지하의 문화재가 약탈·도굴되고 매매되었으며 해외로 반출되었던가를 뼈저리게 되짚어 보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는 옛것을 묵수(默守)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치탐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재개발될 때 의미가 큼을 인식해야 한다. 본회는 이같은 지향점을 갖고 올해도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사 연구', 전국 50개 '전통마을 보고서' 10권 출간, 각 지역단체의 강연회 및 답사 등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관리소홀로 도난·훼손

임병고(부여문화원장)=백제문화권의 경우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조사작업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마터, 성터 등의 유적지를 발굴해 놓고도 그것을 복원하고 보존할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다시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발굴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문화유산의 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기는 했지만 올해 역시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 없이 역부족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각 지역민들의 지역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이에대한 보존과 보호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부여문화원에서는 지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매월 문화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면서 문화적 가치와 보존상태 등을 직접 공부하는 문화학교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속적 조사·연구필요

이영식(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장)=그동안 가야문화권 내의 지표조사와 고고학적 발굴조사, 국제학술회의의 개최, 연구총서의 발간, 일일답사를 통해 김해시민 및 인제인과 가야문화와의 만남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계속해 온 본 연구소는 '문화유산의 해'를 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고대문화 복원에 노력할 것이며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문화유산의 해'가 정부등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렇게 각 지방의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원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문화재 발굴·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보다 많아졌으면 한다.

목어

시간의 주인

"시간이 없어서" "바쁘시죠"

일상속에서 누구나 흔히 하는 말이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모두 바쁘게 산다. 걸음이 재다못해 뛰는가 하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차에서도 길에서도 통화를 할 정도다.

독일에서는 요즘 '느리게 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시간 지체를 위한 위한 모임' 템푸스(Tempus)는 삶의 고속화현상에 반기를 든 단체다. 회원은 독일·오스트리아에 교수 박사 기업인 등 5백여명이 있다.

또 푸스라는 '걷는 사람 보호협회'가 있어 자동차 제한속도 시속 30㎞와 보도를 넓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속 식음행태에 저항하는 슬로푸드라는 이색모임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인 60%가 분주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한가함을 원하고 있으며, 잠시의 여유를 찾기위해 해마다 몇만명씩 수도원을 찾아가 명상여행을 한다.

이같은 현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 스트레스에 못이겨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해에는 자살건수가 하루평균 25명에 이르렀다. 해를 거듭할수록 산사의 여름수련대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도 '빨라야 좋을 것 없다'는 '천천히' 바람이 불고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숨막히게 달려온 우리의 통념을 깨는 역전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로 밀려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쫓기는데 지쳤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속의 행복을 찾고있다.

독일의 어느 소설가는 말했다.

"현대사회에서 호화스런 삶이란 물질적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다."

자기시간을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이 될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희망찬 출발을 했다. 올해는 경쟁 또는 목적달성이란 이름아래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마음대로 여유있게 쓰고 '시간의 주인'이 되자. 그러기위해 대행스님의 새아침 덕담에 귀 기울이자. "몸은 바삐 움직여도 마음은 여유롭게 가지세요."

현대만평

박구원



지키고 가꾸고…

案 포교지도자양성고시 內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며 포교사·법사는 불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사와 같습니다. 자아발견과 인간자각을 위해 하심과 인욕행을 배우며 지혜와 자비로 평화의 길·봉사의 길·해탈의 밝은 길을 밝히는데 눈과 손이 되어주시고 보살서원으로 정진하실 포교사·전법사·법사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시위원회

●증명 : 송서암(전 조계종 종정)
강석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김혜암(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안덕암(전 태고종 종정)
●고문 : 무진장스님, 성암도스님, 김태응스님, 김법혜스님 이외윤·김명윤
●총재 : 윤호석
●고시위원장 : 월운스님
●고시위원회 : 오형근·김영태·조용길
●집행위원장 : 성순경

고시문제

●포교사 응시자 - 불교학·불교사중에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50매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전법사 응시자 - 원시불교·소승(부파)불교·대승불교 가운데서 본인이 연구한 부분에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논문 작성하여 제출
●법 사 응시자 - 원시불교학·삼론학·유식학·정토학·구사학·밀교·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중에서 본인이 연구하고 관심있는 부분에서 150매 내외로 논문작성하여 제출
※「처음 응시자는 포교사, 포교사는 전법사, 전법사는 법사로 응시함」

구비서류

1. 고시지원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복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진 4매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5. 호적등본 1부 6. 포교사자격자는 포교사증 사본 1부
(도장을 두군데 정확히 본인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료 : 50,000원 ※온라인번호 -주택은행 490701-94-200265〈예금주:(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자격 득 한후

- 합격자에 한하여 품계식거행
- 연수 및 분기별교육예정(사저명 교수초청특강)

논문마감 1997年2月10日 18:00까지 제출

면접고사 1997年2月19日 14:00
(전형료 납부후 논문제출하여야 면접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장 소 불교방송국 3층 법당(마포구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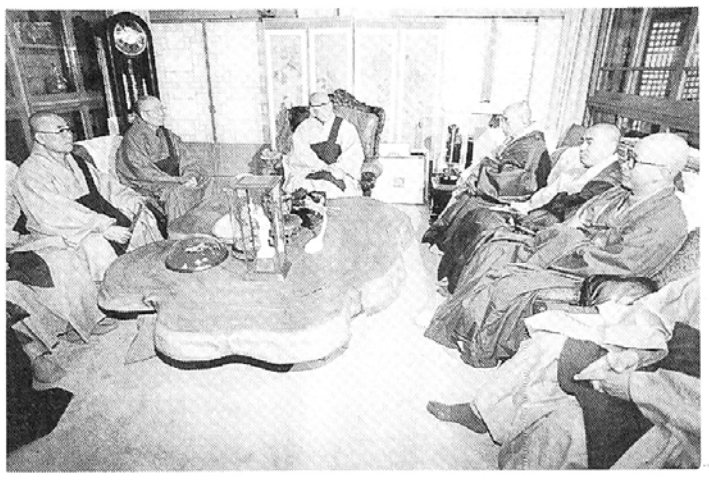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후원 : 불교TV·불교방송·현대불교·주간불교·대한불교

문의처 : 포교지도자양성고시위원회 총무처 TEL .(02)395-2571/2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60호 FAX (02)395-2574

종단마다 교육불사 역점

'97 불교계 전망

정축년 새해를 맞았다. 올해의 불교계는 지난해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추진 등으로 불교계의 대 사회적 위상을 높였고, 내적으로는 중앙승가대의 정규대 승격, 승가대학원 개원, 불교문학상 공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등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활동으로 미련한 도약대를 발판으로 차분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을 비롯해 주요단체의 신년 계획을 통해 올해 한국불교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신년하례를 받은 종정 월하스님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불교계의 엄정중립을 당부했다.

조계종 '전법의 해' 지정 새시대 포교기틀 마련
중신회 상반기 결성…자비 실천 해외로 확대

무엇보다 각 종단에서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수행자상과 불자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 아래 계획하고 있는 교육불사 활성화가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은 지난해 중앙승가대학의 정규대 승격과 승가대학원 개원에 이어 올해에는 사미·사미니 기초선원을 개원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스님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도 실시한다. 총지종은 지난해 설치한 총지불교교양대학에 일선교역자들의 재교육과정인 아사리과정을 개설한다.

조동종 대한법화종은 상반기중 교양대학을 설립한다. 신도교육의 체계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동방불교대학의 개교 준비, 금강불교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인가를 추진한다. 이로써 조계종과 진각종에 이어 태고종 천태종이 4년제 정규대학을 설립,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4대 종단이 선의의 경쟁속에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불사를 펼칠 날이 다가왔다.

1천만 불교신도의 구심체인 중앙신도회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조계종총무원은 상반기중 창립을 목표로 교구신도회 구성과 함께 초대회장 인선 등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사찰신도회 외의 신행단체들의 중앙신도회 합류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중앙신도회 창립으로 잠재적인 불교신도의 유입은 물론 불교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전법의 해' 사업과 맞물리면서 포교의 극대화도 기대된다. 여타 종단들에도 영향을 미쳐 각 종단이 신도조직의 정비 및 창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불교방송의 개국에 이어 청주불교방송이 오는 2월 첫 전파를 발사한다. 강원과 전북, 대전·충남지역 불자들도 불교방송 지방국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불교방송 가청권의 전국확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한 해가 된다.

또 광주불교문화대학이 3월 설립되는 것을 비롯 각 지역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전통사찰의 매주 정기법회 봉행과 주요지역마다 도심포교당과 유치원이 들어선다. 제주는 불타제주중앙클럽을 중심으로 불교학술세미나 개최와 청년불자 배가운동을 펼쳐 기복불교를 넘어서는 신행혁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직지사를 비롯한 지역사찰 및 불교단체에서 문경 모전복지관, 상주 냉림복지관, 경산 백천복지관을 새로 위탁받아 운영케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불교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남아불교국가 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산반야회가 3월 네팔에 현지법인을 설립, 초등학교를 세우고 빈민구제활동을 펼친다. 불교국가의약품보내기 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창립과 함께 활동을 개시한다.

'불교청소년의 해'의 성과물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올해를 '효경사상실천의 해'로 정해 청소년들의 효사상 고취를 위한 자료집 발간과 각종 행사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도 '97 불교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각 종단과 불교단체가 정치권의 불교표공략에 휘말리면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교계는 대선중립을 선언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모색도 올해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대선중립을 선언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김원우
김중근·도필선 기자

시 론

나라걱정 살림걱정

우리사회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뀌는 대 변혁기에 놓여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후진국으로 뒤쳐지게 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의 변혁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

첫째는 경제문제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달러, 외채가 1천억달러를 넘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이것은 경기순환적 침체국면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경쟁력 저하가 그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에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경제운영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노 부 호
〈서강대 교수·경영학〉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이 미국을 100으로 할때 4·7에 불과하다는 한 보고서의 지적은 바로 우리나라에 혁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선거문제이다. 97년은 '정치의 해'라고 할 만큼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변수로서 잘못하면 올 한해가 대립과 투쟁의 순조롭지 못한 격동의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정치가들의 양식있는 행동이 요구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연 학연 혈연에다 종교까지 가세하여 4분5열되어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투쟁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뽑아야 하는 대통령은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덕적 순수성을 첫째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두번째 덕목은 경제적 통찰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순수성과 경제적 통찰력에 기초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노사문제이다. 지금 노사관계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한 뒤 최악의 대립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는 노사대립을 노사협력으로 바꾸기 위한 지혜를 짜야 한다. 지금은 투쟁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 협력의 시대이다. 협력해도 살아날까 말까한 상황에서 대립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핵심은 신뢰관계의 형성이다. 신뢰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 경영이다. 이것은 자율과 참여에 기초를 두고 종업원들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그들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을 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일차적 책임이 경영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업존립은 생각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잡단 이기적 행동을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경영층도 보다 인간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는 북한문제이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이다. 이것은 사람, 정보, 투자 등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모두가 협력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이 냉전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당한 것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불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대착오적 행동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을 일깨워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측의 공식사과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기대해 본다.

국민적 합의 도출하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식문제이다.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두가지 요소는 부패구조와 지역감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치행태에 기인된 바 크지만 이의 타파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계는 남을 사랑하는 동체대비정신과 남이 잘 할 수 없는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봉사정신에 기초를 둔 불교적 가치관을 생활화함으로써 이 운동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경제 선거 노사 북한 의식의 문제는 모두 우리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야 할 일이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자기도취서 깨어나자



이 원 섭
〈시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참회려니와, 이것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나의 경우에는 언제부터인가 집에 바퀴벌레가 가끔 눈에 띄게 되어 그때마다 이를 죽인다고 한 잠에 빠져 있다.

부처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다. 중국 선사들은 '성성착(惺惺着)'이라 외치며 방(棒)을 휘둘러 제자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 애썼다. 열반이라는 절대적 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명(無明)의 거짓된 꿈으로부터 깨어남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누에는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고 들어앉아 금성탕지(金城湯池)처럼 여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시골 아낙네가 이를 집어서 펄펄 끓는 물에 던질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 사람도 고치를 짓기는 마찬가지다. 부의 피라미드·권력의 에베레스트·사랑의 황금사원·명예의 에펠탑…. 꿈도 가지가지다. 그러나 이 모두는 처음부터 허깨비요 신기루일 뿐이니 손에 남을 것이라곤 그 무엇도 없다. 아니다. 그런 허망한 꿈을 좇는 자기야말로 허망한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은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공(허망)이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눈뜨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오점(汚點)이요, 과오요, 죄업임에 눈 뜰 것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자기의 전존재를 참회할 때 부처님의 계율은 타율적인 것이 아닌 자기자신의 발원으로 바뀌리니 그 참회의 눈물이 참으로 진지한 것이라면 거기에 맞추어 '보리'라는 이름의 나무도 성장해 드디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참회는 우리네 범부의 발 밑에서 벌어지는 지각변동, 그것도 성불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지각변동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생활속의 불교 105

내가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의 그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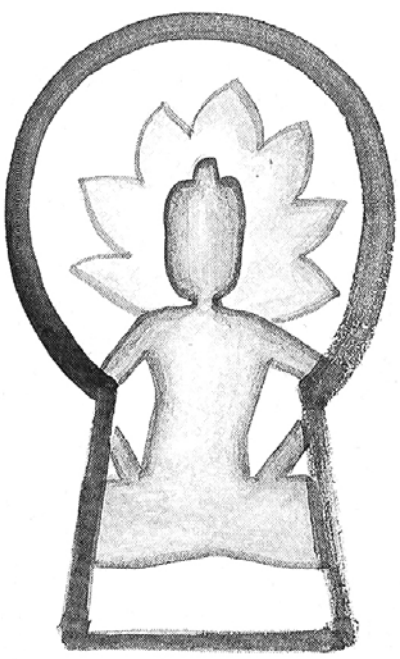
"주인공은 밝고 영원하고 지극하다. 주인공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설사 이 우주가 무너지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본래 태어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그 이름이야 뭐라하든, 불성 이라하든 자성불 이라하든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의 실상, 자기의 실상이다. 주인공은 나의 주인이자 근원인 동시에 일체 만유의 주인이자 근원이다. 주인공은 삼계의 주인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울고 웃고 성내고 욕심부리고…. 이것을 다 누가 하는가?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하고 누가 울고 웃는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 그게 '나'다. 보고 듣고 말하는 주체는 분명 '나'다.

그러나 그 '나'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과연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영혼? 마음? 의식? 우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딱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찾을 수도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 '나'를 우리는 '나'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보는 주체는 눈이 아니다. 눈은 다만 정교한 카메라와 같은 장치요 기관일 뿐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눈이라는 장치에 비친 영상을 보는 놈은 따로 있다. 따라서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그 놈이 진짜 눈이다. 눈 아닌 눈이다. 듣는 것도 귀라는 장치가 듣는게 아니다. 듣는 진짜 귀가 따로 있다.

몸 동작도 이 육신이라는 장치가 하는 게 아니다.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눈이나 귀나 육신은 다만 도구일 뿐인 것이다. 그 도구를 작동케 하는 데는 물론 신경조직과 두뇌의 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그런 신경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누구일까? 영혼일까 마음일까?

방금 죽은 사람의 경우 그 생사의 고비에서 삶과 죽음을 갈라 놓은 주체는 무엇일까? 기관이나 장치로만 보면 생사가 갈리는 그 찰나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육신은 생명체와 주검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변한 것은 무엇인가. 비유컨대 주검은 자동차를 버리고 운전수가 떠난 것과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라는 차를 버리고 떠난 운전수는 누구일까? 그것이 바로 '나'라면 그걸 영혼이라고 해야하나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나이지 누군긴 누구냐 하고 만다면 더는 말할 나위가 없다. 나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저냥 살겠다면 그뿐이다. 그러나 '나'를 모르면서 세상 온갖 일에 대해서는 아는 체하고 분별을 일으킨다면 모순이 아닌가?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세상 벌어진 것을 아는데 그 아는 주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 채 태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의 주체를 알아야 남의 주체도 알 수 있고 동물, 식물의 주체도 알 수 있고 이 우주의 주체도 알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 주체에 대해 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색깔도 맛도 모양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천지가 갈라지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이름 붙일 수 없는 일체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의 근본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일체의 형상법은 거기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고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주인자리가 한 생각 인연의 도리를 따라 형상을 나투었다가 사라졌다하는 나툼과 쓰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가 나이지 누구긴 누구냐하는 그 나의 주체 -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한다면 이 육신의 나, 마음이다 영혼이다 하는 것은 저 허공같은 주인공의 나툼이다.

고로 주인공을 알아야 나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협찬 : 신정모·남장희

법회 안내

광림사(02)202-5831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법륜회(개인택시 기사회)
매월 1회 낮12시
청각장애인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수화교육법회 매주 일 오후3시
보현회법회 매월 1일(음) 오후3시

한성포교원(02)207-8296

신중기도 매월 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거사불회 매월 첫째 셋째 토 오후6시

동선사(0523)82-5074

선무도 주말 수련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입산
일 오전9시 하산
철야정진법회
매월 음력 그믐 자정

관음사(053)421-3700

관음기도 1~3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금어암(051)555-0073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월경사(0591)5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월 셋째 토 오후8시
합창단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해인사 원당암(0599)32-7308

용맹정진법회 매월 1·3주 토 오후5시
아미타불 천일기도 매일 아침 3시

황천사(0458)35-3556

부설 유치원법회 매주 월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학생회법회 매주 월 오후4시
거사불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후7시
유마거사불법회 둘째주 일 오전11시

천왕사(064)42-0516

산신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미륵사(051)35-3556404-2100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30분

고란사문화원(0463)835-9003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한국제이티에스 5,000,000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2,000,000원 △동산반야회 1,000,000원 △도법스님 1,000,000원 △법륜스님 1,000,000원 △이순주 5,000,000원 △김생길 1,000,000원 △문정우 1,000,000원 △김덕회 1,050,000원 △박용애 1,000,000원 △황미경 1,000,000원

〈1월 6일 현재 총 40,024,940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 여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

"불교문화 창조적 계승·발전 주력"

조계종 초대 문화부장 **성 관** 스님



"세계는 문화경쟁시대입니다. 불교계도 마땅히 문화의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부의 독립은 시대적 당위이지요" 초대 문화부장으로 선임된 성관스님은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불교문화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것인가가 문화부의 선결 과제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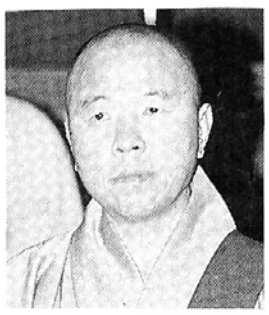
"척박한 불교문화계의 현실속에서 자생적으로 불교문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오신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주축으로 (가칭)문화동우회를 구성해 소모임을 자주 갖고 행사도 하고 자문도 받으며 불교문화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불교문화를 국민정신속에 새롭게 자각시키고 부각시키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힌다.

성관스님은 지난 12월 결성된 성보보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찰의 불사가 중앙의 관리부재로 부실하거나 남발되어 우려할 만한 사태가 빈번해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해온 사실에 비추어 성보보존위의 향후 활동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스님은 "위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성보를 보존 관리할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고, 성보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후세에까지 물려줄 전국민의 것이라는 인식 제고와 창조적 성보조성불사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인류자산 차원서 사찰환경 수호"

사찰환경보존위원장 **능 관** 스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공간을 상업화하는 개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찰환경 침해는 선불교의 전통적 수행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만큼 종단이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장 바쁘고 주목받는 조계종총무원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위원장이 된 능관스님(사회부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인류적 차원의 자산으로서 사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종단의 노력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찰은 불교의 수행공간인 동시에 국민 모두 인류의 자산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에따라 이미 구성된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찰환경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국가법 및 종법 제정 △사찰환경보존 시범지구 선정 △불교환경교서 발표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능관스님은 "현재 환경분쟁이 진행중인 사찰이 40여곳이나 되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현상은 문제발생 초기상황에 불과하며 향후 사찰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교차로

광동학원 이사장에 재임



일면 조계종 종회부의장은 구랍 18일 광동학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재임됐다.

재가연합 공동회장 피선



황석동 부산대명학원 이사장은 구랍 25일 한국재가불자연합 이사회에서 공동회장에 선출됐다.

'96 송파 빛낸 얼굴'에 뽑혀



각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스님은 지난 10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서울시 송파구가 제정한 '96 송파를 빛낸 얼굴'에 선정돼 수상했다.

사회발전공로 석류장 받아



성순경 (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장은 구랍 27일 평화통일기반조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적연스님 최승천씨 동대 석사



적연 봉녕사 승가대학 중강스님은 최근 '불교의 직업관에 근거한 진로지도의 방안'을 주제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또 최승천 법보신문 취재부장도 同 대학원에서 '불교포교에 있어서의 대중매체 활용 연구-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주역 불교적 해설 강의



맹란자 동양서숙대표는 수효사에서 개설되는 주역강좌 강의를 맡는다. 〈빈배가 득한 달빛〉속에 주역을 수필로 엮어낸 맹씨는 이번 강좌에서 불교에서 본 주역을 강의한다. (02)313-3060

대불청 부산지부회장 취임

이건국 대불청 부산지부 회장은 지난 8일 코모도호텔에서 제21대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다.

인 사

불교TV ▲경영관리국부장 조창덕

부음 증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본명 안복식)씨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1-1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1세.

'97년을 뛴다

선재마을 청소년법당 **유 지 선** 법사



"올 한해는 어느해보다 바쁠것 같군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각종 캠프는 물론 10대들을 위한 쪽지 '선재들의 속삭임'을 발행해야 하니까요."

선재마을 청소년 법당 유지선법사(33)의 신년설계는 '가치관의 변화가 심한 10대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끌자'는 것.

유법사가 준비중인 10대들을 위한 쪽지 '선재들의 속삭임'은 가정, 성(性), 학업, 진로 등 청소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상담과 문화정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유법사는 새해 벽두부터 관련자료를 모으는 등 발행준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세계속으로 들어가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처님의 폭넓은 자비심을 일깨워줘야 할 때"라는 것이 유법사가 10대들을 위한 쪽지 '선재들을 위한 속삭임'을 준비하게 된 이유다. 또한 유법사는 이러한 새싹불자들을 위한 각종 불사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 바람이다.

'10대 쪽지' 발행 … 새싹불자 육성 '구슬땀'

동대부중시절 불교반과의 인연으로 불교활동을 시작한 유법사는 고 3때 친구들과 함께 서울 목동 롬비니포교원에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면서 부터 청소년 지도법사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유법사는 선재들을 위한 모임, 불교청소년 지도자모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서울지구 등의 일을 맡아 오면서 서울지역 어린이 대상 불법홍포와 놀이문화확산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청소년·노인복지 소원 풀었어요"

20억상당 자택 선뜻 보시한 **오순희** 보살

반평생 살던 집을 청소년 및 노인복지를 위해 사찰에 보시한 불자가 있어 보살행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순희보살(청정행, 73)이 그 주인공.



오보살은 현재 기거하고 있는 대지 370여평, 건평 1백여평 규모의 집(성북구 종암동 78-115)을 40여년동안 다니던 (재)선학원 만덕사(주지 법선)에 희사했다.

오보살의 집은 '죽림정사로 변모' 지난 8일 개원법회 및 부처님 봉불식을 가졌다.

오씨는 "사람은 생노병사를 통해 끊임없이 몸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평생 원을 세웠던 불교복지를 위해 늙어가는 내 몸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덤덤하게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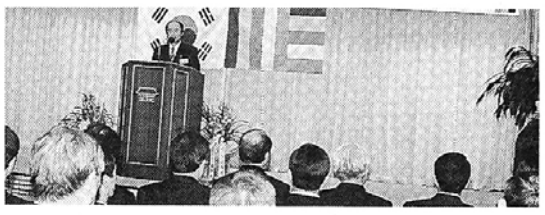
죽림정사는 타지역에 비해 사찰, 포교당이 적어 불교세가 약한 종암동에서 지역포교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보살과 법선스님은 죽림정사를 어린이집과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불교는 새싹불자 양성에 달려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오보살은 청소년회관 건립의 장기플랜을 설계중이기도 하다. 〈필〉



천태종 상월조사 탄신봉축법요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85회 탄신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중국 국청사 방장 가명, 일본천태종 총본산 연력사 부집행아미가데와, 원융종총무원장 일공,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스님, 충북지사 주병덕, 문체부 종무실장 김용운씨, 우폰민 주한미얀마대사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계인사 신년 하례회

부산 불교계인사 신년하례회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공동주최로 지난 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렸다. 이날 하례회에는 불교연합회소속 스님들과 진만현 부산부시장, 정한상 부산일보 사장, 김용태 부산여대 총장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97년 불교인들의 화합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자대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구랍 30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불교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종자원봉사단 보리회와 부처님마을자광원, 신동춘 오용순씨가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불교자원봉사팀 및 봉사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청교련인천지부 장애인 수련대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구랍 28일부터 30일까지 강화도 청소년 심신수련원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인천지역내 정신지체·행동장애자 60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유적순례, 참선, 캠프파이어, 사찰예절 실습등이 실시됐다.

제 12회 불이상 수상자 선정


◇명성스님


◇선담스님


◇김재영법사


◇김상영교수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시상하는 제12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김상영교수, 실천분야에 김재영법사(청보리회 대표) 장학분야에 선담스님(동국대 선학과박사과정) 출가면학분야에 명성스님(동국대 역경원) 선정됐다.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 형 방 법
지도자과정 30명 일반과정 30명	불자 고등학교 졸업, 38세 이상의 남·녀	입학원서 1통 본원 소정 양식 1통	원서교부 : 97년1월10일 ~ 2월 28일 접수 : 3월1일 ~ 3월 10일(전형료 15000원)	면접 및 서류전형 공·사 기업체 명예퇴직자 우선전형

4. 특전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계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본원졸업(일반과정)수계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우리불교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

※ 교육과정 설명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心外無佛' 내 인생의 주장자

산문밖의 禪

통문관 대표 **이겸로** 翁

빛바랜 고서와 동고동락 70여년
小食·편안한 마음가짐 '건강 비결'
'직지심경' 등 고활자 연구
소장도서 1만여권 도서관에 기증



옛 것은 오늘을 낳는다! 그윽한 역사의 향기는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

소중한 전적(典籍)들이 외적들에 빼앗기다시피 마구 유출되어 나갔고, 또는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동안 민족 문화유산이 맥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자취를 간직하려는 보이지 않는 수집가들에 의해 흔적이나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한층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화랑 골동품상이 빼곡한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고서적들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창고역할을 해 온 고서점 '통문관(通文館)'. 70여년의 세월동안 통문관을 운영해 온 이겸로옹(89)은 옛 것을 오늘에 낳은 '통문관 할아버지'로 통한다.

"8·15 광복, 6·25를 겪으면서 쏟아져 나온 국보급 고서, 자료들이 외적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만은 없었지. 고서발굴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셈이야. 배운 것이 미천해 역사의 중요성을 훤히 궬 수는 없었지만. 허허." 올해로 춘추 여든아홉. 미수(米壽)를 넘긴 이옹은 그 허허로운 웃음 속에 이미 세상을 꿰뚫고 있었다.

"고서를 취급하면서 옛 선사의 한마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심외무불(心外無佛) 촉목개불(觸目皆佛)'이라는거야. 내 마음 안에 바로 부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마음먹기에 따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내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주장자였지. 그래서 말인데 남들이 나를 두고 '역사의 파수꾼'이니 '국학발전의 전령'이니 하는 거창한 말들은 단지 그 가르침 하나만으로 살아온 나를 부끄럽게 할 뿐이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던가. 그가 짧게 내뱉은 웃음 속에 배어나온 선객(禪客)의 힘을 가식없는 하심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옹은 16살에 책방 점원을 시작 9년만인 1934년 통문관의 전신인 금향당을 차린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년을 오로지 빛바랜 고서와 함께 살아왔다.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보배로운 우리 옛 책을 찾아내는 수집가요, 2만권 넘게 간수하고 있는 장서가로 현역 생활을 해 왔다. 어디 그뿐인가. 어려운 옛 전적을 현대인들이 알 수 있게 풀어내는 서지(書誌)학자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고려때의 〈직지심경〉을 비롯한 조선초기의 계미자(癸未字)(1403) 경자(庚子)자(1420) 갑인(甲寅)자(1434) 등 우리 옛 활자(체) 여러 가지를 판별 감식하는 고활자 연구가이다. 또 아무리 낡고 헝클어진 옛책이라도 말끔히 제 모습으로 되살려 놓는 제책 기술자이기도 하다.

"옛책 통해 선조들 정신 배우고 탐욕도 녹여요"
6·25땐 고서 80권 짊어지고 피난 '평생 책사랑'

이옹은 〈통문관 책방비화〉 〈문방사우〉 등의 저서도 펴냈다. 반년전 둘째아들에게 대물림을 하기 전까지는 통문관 주인이기도 했다.

이옹은 그렇게 수많은 인생전적을 쌓아오면서 '나 없는 곳에서 나를 찾는 작업'으로 신명의 경계를 드나들었다. 고서를 대하면서 무념무상을 몸에 익혔고, 인생의 '걸림'을 삭히는 체내림을 배웠던 것이다.

"6·25 당시 피난길에 옷보따리 대신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 전 80권의 책만 짊어지고 떠났었지." 그토록 '책사랑'에 빠졌던 이옹은 스스로를 '고서더미에 묻혀 책을 갉아 먹는 좀벌레'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그는 평생 폐지더미에서 귀중한 우리 옛 책들을 발굴·복구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던 〈월인석보〉와 상해 임시정부가 두 책으로 묶은 〈독립신문〉을 발굴하고 연세대에 기증한 일, 이희승박사의 소개로 〈삼국유사〉를 찾아 서울대에 소장케 한 일 등 이옹이 고서발굴과 보전·전파에 헌신적으로 기울인 노력은 이루 말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옛 사람의 체취와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전적을 대하다보면 옛사람의 정신을 배우고 마음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그 순간만큼은 탐욕이 봄눈 녹듯 말끔히 사라지거든. 사소한 욕심이란 가당찮은 일이지. 고서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일게 하지. 그 즐거움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

다소 짐작하기 힘든 경지를 설명하는 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와 전적과의 인연은 굴곡많았던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고서가 나올건 거의 다 나왔는지 요즘은 통 고서가 안나와. 읽는 사람도 드물고"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옹은 "도서관들이 책을 더 많이 사들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도서관을 통한 독서풍토를 강조했다.

아직도 하루에 한번은 통문관에 나와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옹은 건강비결로 소식(小食)과 편안한 마음가짐을 꼽으며 "일에 집중하면 정신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집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 1만여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인 그의 고서에 대한 애정어린 손놀림이 평정심으로 전위되고, 한철 안거를 마치고 하산하는 수행승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었다.

도필선 기자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

문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하고 믿음이 있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최철상·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답 쉽게 말해서 나무가 제 뿌리를 믿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주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든든히 버틸 수 있는데 그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다른 나무의 뿌리를 믿는다면 그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어디 따로 믿을 대상이 있어서 믿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제 뿌리, 말하자면 자기의 근본자리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본 성품자리에서 보면 믿는 자도 믿을 대상도 믿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주인공이요 우주요 그대로 공인데 뭘 믿고, 무슨 대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 생긴 그대로가 부처요 주인공의 나툼인데 말입니다.

비유해서 나무가 뿌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나무 줄기나 가지나 잎이 뿌리와 둘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하나일뿐 믿고 말고 할 것도 싫은 없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부처요 내가 곧 우주라는 점을 모르고 따로 믿을 대상을 찾고, 믿을 대상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문제는 바로 이 모른다는 사실, 즉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제 뿌리를 믿어야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 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지금의 이 나는 본성의 나툼이며 자신의 근본성품은 우주만물과 둘이 아니어서 한마음으로 통하며 서로서로가 직결이 되어있다고 가르쳐줘도 자꾸만 딴청을 부리고, 자신의 근본성품이 곧 부처요 따라서 나를 있게한 근본자리 주인공이 만물의 뿌리요 우주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고해도 오히려 긴가민가 하면서 따로 믿을 대상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뭘 믿느냐? 네 뿌리가 곧 우주의 뿌리요 부처자리이다 하는 점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밖에 형상을 믿고 부처다 관음이다 하느님이다 하는 이름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요 나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다르지 않아 한마음임을 철석같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석같은 것이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사무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치게 믿으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게 바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덕의 어머니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이전에 깨달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어서어서 깨닫기는 해야겠는데 왠지 공부가 더딘 것 같고, 갑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뿌리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통해 깨닫고자 하는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요 내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을 사무치도록 믿지 못하고서야 누가 대신 알게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리고 사무치도록 믿으면 이미 그것은 둘아닌 도리를 알았다는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다고 했지'하는 것은 사무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야 경전을 보면 어디에서나 다 나오고 역대 조사님들도 말끝마다 누누히 강조하셨으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머리로 그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불교는 첫째도 실천이요 둘째도 실천입니다. 누가 대신 일러줄 수 없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거수 일투족에서 그런 믿음이 떠나지 않아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그런 정도에 이른다면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되면 무릎을 치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알게되니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음식점에 가서 자장면을 직접 먹어본 사람하고 말로만 들어본 사람하고 같을수야 없겠지요.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도 나는 한 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직접 실천하지 않고 말에 걸려서 말로써만 이해하려 할까봐 그러셨던 것입니다.

고로 믿음, 진정한 믿음이란 실천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불법을 신봉하고 부처님을 존경한다고 해도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지능이 옛날과 달라서 웬만한 일쯤은 애써 참구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아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예전 사람들보다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가 더 쉬워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알음알이만 늘어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믿음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활성탄 쌀로 부처님께 공양을 …

활성탄 쌀

—. 활성탄 농법으로 생산된 쌀에는 농약과 제초제의 독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특이한 쌀입니다.

—. 옛날 햅쌀밥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소한 맛과 향의 미각을 통해 활성탄 쌀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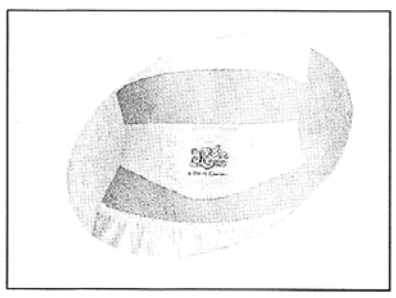
—.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는 생명으로의 농업, 생명으로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된 쌀의 양이 많치 않아 백화점과 미곡 상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 매장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택배를 해 드립니다.

—. 활성탄 쌀을 구입하시면 물사랑 땅사랑의 환경 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도 됩니다.

(사)광록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
전화 : 553-0089, 558-0049, 448-6562, 512-6077
생산 농민을 대리하는 안용식 합장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괴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괙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깨달음으로 이끄는 진리의 '數'

法數로 배우는 불교 ❶

연재를 시작하며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명산고찰을 찾게 되면 하나의 움직임 없는 마음을 세우라는 뜻의 일주문이나 일체법을 평등히 보라는 의미의 불이문,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해탈문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수전과 같은 큰 법당을 마주하게 되는데 법당에는 그곳에 맞는 삼존불이 여러 모습을 한 탱화와 함께 모셔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당 주변에는 아귀와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친다는 범고, 운판, 범종, 목어 등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사물(四物)이 갖춰져 있다. 불자는 으레히 법당에 들어서면 오체투지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 준비해 간 향, 등, 쌀, 꽃, 과일, 옷 등의 여섯가지 공양물(6법공양)을 올린다.

또한 법당 밖에는 절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높이 세운 찰간, 불을 밝히는 석등,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된 탑 같은 것이 설치되고 주변으로는 관음전, 지장전, 응진전과 함께 산신각, 칠성각과 같은 소규모의 전각들이 배치돼 있다. 역시 이러한 법당과 전각들에는 벽의 안팎에 수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입멸과정을 여덟단계로 그린 팔상도, 아홉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그린 구품정토도(九品淨土圖), 참선하는 수행자가 도를 깨닫기까지의 열가지 과정을 소를 찾는 모습에 비유하여 그린 십우도(十牛圖)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절을 자주 찾는 불자들이라면 익히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절의 가시적인 갖가지 구조물과 문양 그리고 의식속에는 어떤 의미있는 숫자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불자는 그리 흔치 않다.

그 숫자는 때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려는 교시의 숫자일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신행의 숫자일 때도 있다. 더구나 부처님이 설한 경전들을 펼쳐 보면 수많은 숫자들이 어떤 용어 앞에 늘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불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경에 나오는 숫자를 이해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숫자가 달린 불교용어가 매우 많은데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법수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뜻이다.

삼보·사성제·팔정도 등 교리 숫자로 표현
증일아함경 一法부터 법문수따라 편찬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바라 본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한 분석과 관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줄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온갖 중생들은 탐욕을 끊지 못해서 여섯갈래의 길에 들어 나고 죽음을 되풀이 하나니, 응당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도를 닦아 거룩한 열반에 들어야 한다"고 설했을 때 앞의 여섯이라는 숫자는 법을 관별하신 법수이고 뒤의 여덟이라는 숫자는 실천을 요구하신 법수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불교용어 대부분이 그 앞에 법수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효는 불교를 평생 연구한 학자라도 다 알지 못할만큼 많다.

〈증일아함경〉의 경우 일법(一法)에서 십법(十法)까지의 법문 수(數)를 따라 편찬된 경으로 오계(五戒) 팔난(八難) 십념(十念) 등의 사항에 관해 오십이품(五十二品)으로 설함으로써 법수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삼계(三界) 오온(五蘊) 육도(六度) 십이인연(十二因緣) 등 불교교리와 연결돼 있는 법수는 중국 명나라 스님의 법수사전 대명법수(大明法數)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 1년동안 법수가 들어있는 불교용어를 차례로 살핌으로써 독자들이 불교를 쉽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8만은 많은 수를 상징하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 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 전생담이 표현된 그림을 아울러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홍콩에서 개설한 '부처님 이야기'(Tales of Buddha)는 태국에서 전래된 자타카(Jataka) 즉 부처님 전생담이 형상화 된 25점의 그림을 모아놓고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대부분은 태국의 라타나코신 시대에 그려진 고대 불교미술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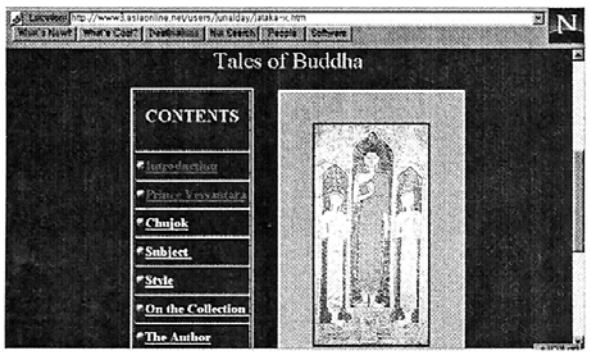
고대 태국의 예술들은 대부분 부처님 전생담으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태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자타카는 총 547개. 이중에서 태국의 종교·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림을 엄선해 '마왕의 유혹을 뿌리치는 부처님' '소연화왕의 전생' '마힌사 왕자의 전생' 등 10여종을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 이야기'를 개설한 J.알데이씨(미술비평가, 홍콩)는 "태국의 고대미술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 전통과 도덕적 가치에 헌신하게 한다"며 태국 불교미술을 평가했다.

평면적 구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듯한 인물이 등장하는 태국의 불교미술은 현란한 기교의 그림과 비교해 거칠고 서툴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인간 본래의 감성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태국 불교미술이 지닌 고귀함과 미천함의 교감 속에서 내면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신비감을 맛볼 수 있다.

한편 이 사이트에서는 태국 불교미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처님의 십엽(十葉)〉 〈태국의 전통미술〉 등과 같은 참고도서 7종을 소개하고 있다.

이곳의 웹주소는 'http://www3.asiaonline.net/users/junalday/jataka-x.htm'이다. 〈욱〉



전생담 태국 고대미술과 함께 감상

日 백제관음 佛 나들이
루브르박물관 전시



일본 최고의 국보로 꼽히는 '백제관음' 불상이 프랑스에서 전시된다.

일본과 프랑스 정부는 올해 프랑스에서 열릴 '일본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백제관음상을 프랑스로 반출키로 합의하고, 백제관음을 소장하고 있는 법륭사와 최종협의를 벌이고 있다. 반출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백제관음'은 오는 4월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는 '일본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루브르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51년 일본이 국보로 지정한 백제관음은 엄격한 표정의 당시 불상과는 달리 온화한 미소와 우아한 자태의 조각으로 '국보중의 국보'로 불리며 담징이 그렸다는 금당벽화로 유명한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 대보장전(大寶藏殿)에 봉안돼있다.

"불교분쟁 해결 세속법 의존말자"
손성교수 주장 재산·환경 효율관리제도 마련해야

한국불교는 스스로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가능한 한 세속법에 의존치 않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손성교수(동국대 법학)는 최근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과학연구' 제3호에 기고한 '한국의 불교판례의 경향과 전망'에서 1950년이후 파란과 역경의 불교사에 대한 법적 판례는 불교계가 가야 할 일정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교수는 이승만정권의 대불교계 유시, 박정희정권의 불교계 정화, 전두환정권의 법난, 그 이후 계속된 종교로서의 불교의 몰이해와 차별정책 등을 열거하고, 이는 불교계의 분열을 야기시킨 사건들이며, 결국 근대법제에서 확립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헌무효확인소송,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가처분 사건 등 종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90년대를 전후해 불교재산과 관련된 재산소송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손교수는 불교계가 불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소송 등의 전문적 소송에 충분히 대비하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문화재 안방서 관람
美·日, 디지털영상 개발

문화재나 미술작품 등을 디지털 영상화하여 안방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이 소장품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영상화한 데이타베이스 '더 싱커(The Thinker)'를 발표한데 이어 일본도 올들어 정부 및 산학협동으로 이러한 문화디지털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33개 기업과 9개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공예품과 미술품의 영상디지털화 사업을 이미 시작한 단계이다.

또한 일본 문화청도 각종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영상 디지털화해 상호간에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저팬 뮤지엄 구상(Japan Muscum Plan)'에 착수했다.

이 사업과 관련 도쿄국립박물관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20만여점의 화상을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도 제공되는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의 '더싱크'는 작가나 제목 주제별로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안방에서도 약 6만여점에 달하는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검색기능 외에 부가된 기능으로 온라인관람객들만을 위한 특별전시회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디지털화와 관련, 허가방법 저작권문제 디지털화권리 취득등 넘어야할 문제도 적지않다. 작품의 질감과 입체감 등을 사실감있게 표현해내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윤호 기자

佛紀 2541年 謹賀新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96.11. 5 신장개업
쑥찜, 맥반석 찜질방 겸비
"

피부미용
류마티스 관절염
산후조리
에 좋은 한증 요법

····· 문화 불 한증막 ·····

위치 : 부산시 대연4동 UN묘지 정문 앞
전화 : 051)627-6605
버스 : 25,68,78,34,134 UN묘지 정문앞 하차

이 표 소지자에 입실료 30% 할인. 1/9 ~ 3/31

불교증흥회관 개원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신정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조계종 전 종정이신 송서암 큰스님께서는 10여년 전부터 김청암 큰스님을 위시해서 명도각 스님, 허봉정거사 및 법성회 신도들과 함께 "한민족 불교 중흥회"를 결성하여 북한산 중흥 사지의 복원에 진력한 결과 "복원 발굴 허가"를 득하여 복원 불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고려말 5교9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세우신 태고 보우국사의 유업을 계승하여 한국 불교를 중흥하고자 한국불교의 종가 터인 중흥사 복원과 함께 전 불교도간의 화합과 통일을 발원하셨습니다.
뜻 있는 신도들이 서암 큰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서울종로구 가회동에 불교중흥회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교증흥회관 개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참석으로 중흥불사의 인연공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흥사 주지 명도각 합장

■ 장소 : 서울 종로구 가회동 가회빌딩 2층 불교 증흥 회관
■ 일시 : 1997년 1월 22일 11시
■ 전화 : 02)744-0315

지정문화재 70% 불교유물

국가지정 문화재중 국보와 보물은 몇점이며, 이중 불교문화유산은 얼마나 될까.

9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문화재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국보는 2백92점, 보물은 1천2백44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보 및 보물은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등 국가가 지정한 각종 문화재 2천6백65건의 57.6%에 이르고 있다.

국보중 불교문화재는 국보 제2호로 지정된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일제지정 문화재 재평가에서 국보로 승격된 통도사 대웅전등 모두 1백45점으로 전체 국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물은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를 비롯 96년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 길상탑 등 모두 7백43점으로 전체 보물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 292점중 145점 성보…보물은 743점
새 문화 창출 자원…국민인식 제고 급선무

전체 국보보물 1천5백36점중 60%정도에 해당되는 8백81점이 불교문화재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시·도지정 문화재까지 합할 경우 우리 문화재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우리 문화재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단순히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 이를 적극 알리고 또 고부가 가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문화재위원)은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모두가 관심있게 불교문화재를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관광프로그램 마련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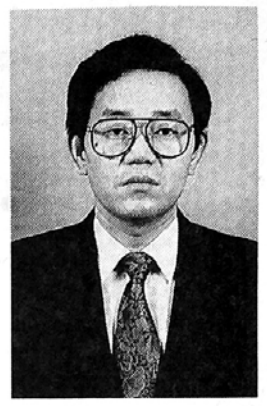


◇신라시대 제작된 금동보살입상(국보 제184호·높이 32㎝)의 얼굴 부분.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미소가 보살정신을 일깨운다.

국보 불교문화재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서울 종로구
4호	고달사지부도	경기 여주군
5호	법주사쌍사자석등	충북 보은군
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충남 천안시
8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충남 보령시
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충남 부여군
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전북 남원시
11호	미륵사지석탑	전북 익산시
12호	화엄사각황전앞석등	전남 구례군
13호	무위사극락전	전남 강진군
14호	은해사거조암영산전	경북 영천시
15호	봉정사극락전	경북 안동시
16호	안동신세동칠층석탑	경북 안동시
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경북 영주시
18호	부석사무량수전	경북 영주시
19호	부석사조사당	경북 영주시
20호	불국사다보탑	경북 경주시
21호	불국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22호	불국사연화교칠보교	경북 경주시
23호	불국사청운교백운교	경북 경주시
24호	석굴암석굴	경북 경주시
26호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좌상	경북 경주시
27호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28호	백율사금동약사여래입상	경북 경주시
30호	분황사석등	경북 경주시
32호	해인사대장경판	경남 합천군
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36호	상원사동종	강원 평창군
37호	경주구황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38호	고선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39호	월성나원리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41호	용두사지철당간	충북 청주시
42호	목조삼존불감	전남 순천시
44호	보림사삼층석탑및석등	전남 장흥군
45호	부석사소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46호	부석사조사당벽화	경북 영주시
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경남 하동군
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강원 평창군
49호	수덕사대웅전	충남 예산군
50호	도갑사해탈문	전남 영암군
52호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합천군
53호	연곡사동부도	전남 구례군
54호	연곡사북부도	전남 구례군
55호	법주사팔상전	충북 보은군
56호	송광사국사전	전남 순천시
57호	쌍봉사철감선사탑	전남 화순군
58호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충남 청양군
59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강원 원주시
62호	금산사미륵전	전북 김제시
63호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강원 철원군
64호	법주사석연지	충북 보은군
67호	화엄사각황전	전남 구례군
72호	금동계미명삼존불	서울 성북구
73호	금동삼존불감	서울 성북구
75호	표충사청동함은향완	경남 밀양시
77호	의성탑리오층석탑	경북 의성군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서울 종로구
79호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	서울 종로구
80호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	서울 종로구
81호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	서울 종로구
82호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	서울 종로구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서울 종로구
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충남 서산시
85호	금동신묘명삼존불	경기 용인시
86호	경천사십층석탑	서울 종로구
99호	갈항사삼층석탑	서울 종로구
100호	남계원칠층석탑	서울 종로구
101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	서울 종로구
102호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	서울 종로구
103호	중흥사쌍사자석등	광주 북구
104호	전흥법사염거화상탑	서울 종로구
105호	산청법하리삼층석탑	서울 종로구
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	서울 종로구
108호	계유명삼존천불비상	충남 공주시
109호	군위삼존석굴	경북 군위군
112호	감은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117호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전남 장흥군
118호	금동미륵반가상	경기 용인시
119호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서울 종로구
120호	옹주사범종	경기 화성군
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강원 양양군
123호	익산왕궁리오층석탑내발견유물	서울 종로구
124호	한송사석조보살좌상	서울 종로구
126호	불국사삼층석탑내발견유물	경북 경주시
127호	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	서울 종로구
128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경기 용인시
129호	금동보살입상	경기 용인시
134호	금동보살삼존상	경기 용인시
144호	월출산마애여래좌상	전남 영암군
182호	금동여래입상	서울 종로구
183호	금동보살입상	서울 종로구
184호	금동보살입상	서울 종로구
185호	묘법연화경	서울 종로구
186호	양평금동여래입상	서울 종로구
187호	봉감모전오층석탑	경북 영양군
196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경기 용인시
197호	청룡사진각국사정혜원융탑	충북 충주시
199호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200호	금동보살입상	부산 남구
201호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군
202호	대방광불화엄경진본(권37)	서울 종로구
203호	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6)	서울 중구
204호	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36)	서울 중구
206호	해인사고려각판	경남 합천군
208호	금동육각사리함	서울 중구
209호	보협인석탑	서울 중구
210호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권13)	경기 용인시
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권1~7)	서울 강남구
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서울 중구
213호	금동대탑	경기 용인시
214호	홍왕사명청동은입사운용문향완	경기 용인시
215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권31)	경기 용인시
217호	금강전도	경기 용인시
218호	아미타삼존도	경기 용인시
221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강원 평창군
234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1~7)	경기 용인시
235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경기 용인시
236호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241호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권249)	서울 송파구
244호	유가사지론(권17)	서울 송파구
246호	대보적경(권59)	서울 강남구
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	충남 공주시
251호	대승아비달마잡집론(권14)	서울 종로구
256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1)	서울 강남구
257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9)	서울 용산구
265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13)	서울 영등포구
266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75)	서울 강남구
267호	초조본아비달마식신족론(권20)	서울 강남구
268호	초조본아비담비바사론(권11,17)	서울 강남구
269호	초조본불설희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6)	서울 강남구
272호	초조본유가사지론(권32)	서울 강남구
273호	초조본유가사지론(권15)	서울 강남구
276호	초조본유가사지론(권53)	인천 남동구
277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36)	경남 양산군
279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74)	서울 서초구
280호	성거산천흥사동종	서울 종로구
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	경북 영주시
284호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권162,170,463)	서울 강남구
※ 지난해 11월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에 의해 신규 지정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전북 익산시
	※통도사대웅전	경남 양산군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	강원 평창군
	※금동관세음보살입상	서울 종로구

나의 수행일기



이상윤 〈북인천세무서 세무조사관〉

남 의심한 죄업 일깨워준 부처님

시트틈새서 찾은 지갑…초발심 다시 갖게 해

4년전 어느 날인가! 한해 두해 지나쳐가는 세월을 바라만보다 문득 공자의 말씀을 떠올렸다.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이라 했는데 지금의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직장과 집을 오가는 것인가 라는 고뇌에 빠져있던 어느날,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생각지도 않던 서울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퇴근후엔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처럼 강남역 근처 능인선원으로 달려가 지광스님의 법문을 듣고 귀가하곤 했다.

어느날 법당문을 두드렸다. 보시금을 준비하려 지갑을 찾으니 보이질 않는다. 깜박 차에 두고 내린 것이다. 날이 어두운지라 주차해준 아저씨와 랜턴 몇개를 들고 차내의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으나 찾지못하고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의구심만 싹트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그만 잊자고 하였으나 나는 내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 밖에 없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 또한 전생의 업이런가…" 라는 망상으로 가득찼다.



그날 이후 항상 다정한 미소로 주차해주시던 그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원망과 의심으로 변해가고 날이갈수록 내 마음의 의심덩어리는 계속 부풀어만 갔다.

그런 의심속에서 보름이 흘렀을까. 온갖 의혹속에 잠을 청하던 그날 새벽무렵, 나를 해치려 달려드는 그 거대하고 시커먼 형상에 놀라 "잘못했어요"라고 외치고는 눈을 떠보니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였다. 아내는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나에게 보문사행을 재촉했고 우리는 의포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무료함을 달래려 과자를 먹던중 과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주우려는데 운전석 시트틈새로 까만물건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지갑이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의심하고 찾아헤매던 바로 그 지갑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듯 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엄습해 왔다.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섭다더니…."

떠난 아뢰야식(八識)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여래장(如來藏)인 본래의 나(眞我)가 나를 깨우쳐준 것이다. 순간의 의심으로 인해 무명에 싸여 영원히 풀지못할 죄업을 일깨워준 나의 부처님, 그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다.

경전에 초발심시변정각 이라는 말이 자주 대두된다. 불교를 알고자 교리대학에 입문하는 초발심자들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 의문을 풀기위해 처음 법당문을 두드리던 초발심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 깨우쳐서 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일찍이 성철 큰스님은 "나는 불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믿는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뿐이다. 이보다 나은 진리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버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중에 생사를 초월하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외에 더 있는지 자문해 본다.

1997학년도 제6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인격적 신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무량광대한 법사의 길을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열어 갑시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 거쳐)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월 29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 **424-0801**, 대전문경서적 :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㉗

平日好打無明的 也不打了
평일호타무명적 야불타로
平日好名好利的 也不要了
평일호명호리적 야불요료
平日諸多習染的 也沒有了
평일제다습염적 야몰유료
甚麼也 不分別了 甚麼也放下了
심마야 불분별로 심마야방하료

평소에 못된 짓을 하던 이도 가만히 있을 것이며
평소에 명리를 좋아하던 이도 모른척 할 것이며
평소에 습기와 때가 많던 이도 그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무엇도 분별하지 않고 그 무엇도 놓아 버린다.

諸位同參呀 我們這個軀殼子
지위동참아 아문저개구매자
一口氣不來 就是一具死屍
일구기불래 취시일구사시
我們所以放不下 只因將他看重
아문소이방불하 지인장타간중
方生出人我是非愛憎取捨
방생출인아시비애증취사
若認定這個軀殼子是具死屍
약인정저개구매자시구사시

일구화두 여의천장검 마래마참 불래佛斬
불참
不怕甚麼妄想 有甚麼打得爛
불파심마망상 유심마타득이한

하루종일 행주좌와 동정한망을 막론하고
온 몸이 안 팎 통채로 하나의 의념이 되어
언제나 끊이지 않고 의심하며 가라. 털끝만큼의 딴생각이 섞여도 안된다.
일구 화두로 마치 천장검에 의지하듯 마군이 오면 마군을 베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라.
어떤 망상도 두려워 말라. 무엇이 있어 그대를 침범하겠는가.

又那個去分動分靜 那個去着
우나개거분동분정 나개거착
有着空 如果怕妄想 又加一重妄想
유착공 여과파망상 우가일중망상
覺清淨早已不是清淨
각청정조이부시청정
怕落空 已經墮在有中
파락공 이경타재유중
想成佛 早已入了魔道
상성불 조이입료마도

"몸뚱이 숨 들이쉬지 못하면 시체이니 소중히 여기기보다 다만 놓아버려라"

不去貪貴他 根本不把他看作是我
불거보귀타 근본불파타간작시아
還有甚麼放不下 只要放得下
환유심마방불하 지요방득하

그대들은 알아듣는가. 우리들도 이 일개 몸뚱이
숨 한번 들이쉬지 못하면 곧 한 구의 시체라
우리들이 놓아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몸뚱이를 소중히 여겨서
너니 내니 옳으니 그르니 애증과 취사의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 이 한 몸뚱이가 곧 한 구의 시신이라 인정한다면
보배처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그것이 나라고 보지도 않을 것이니
도리어 무엇을 놓지 못하겠는가. 다만 놓아버려야 한다.

二六時中 不論行住坐臥 動靜閒忙
이륙시중 불론행주좌와 동정한망
通身內外只是一個疑念
통신내외지시일개의념
平平和和不管的疑下去 不雜絲毫異念
평평화화부단적의하거 부잡사호이념
一句話頭 如倚天長劍 魔來魔斬 佛來

또 어찌 동과 정을 분별하여 집착하겠는가.
공에 집착하면 망상을 두려워 할만하나
그것은 또 하나의 망상을 덧씌우는 것이다.
청정하다고 알면 이미 그것은 청정이 아니다.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 이미 유에 떨어진 것이다.
성불한다 생각하면 이미 마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所謂運水般柴 無非妙道
소위운수반시 무비묘도
鋤田種地 總是禪機
서전종지 총시선기
不是一天盤起腿子打坐 才算用功辦道的
부시일천반기퇴자타좌 재산용공판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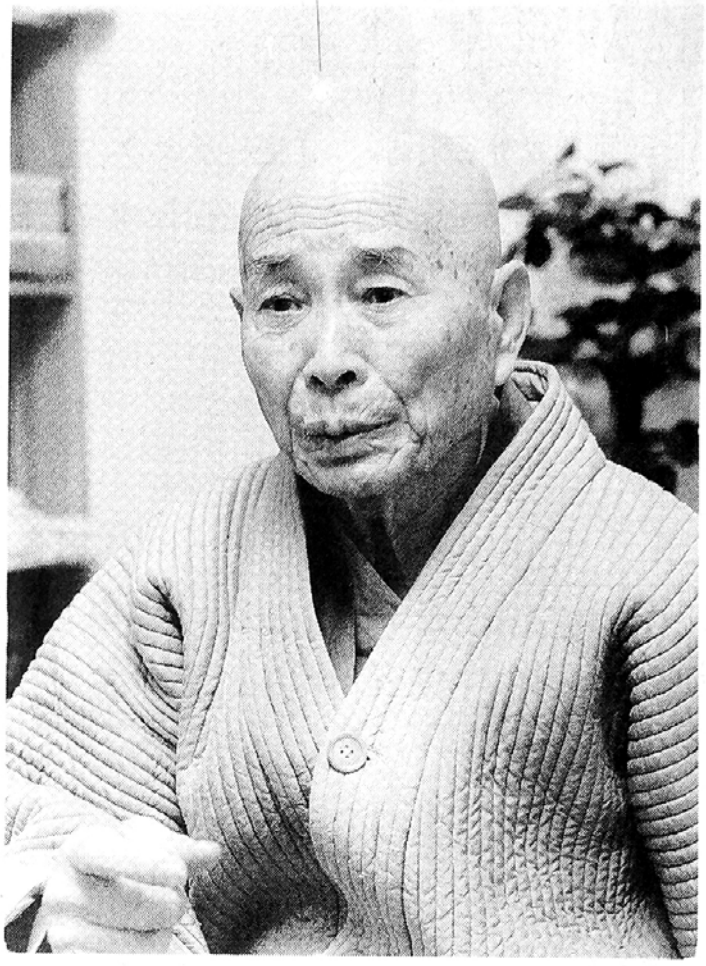
이른바 물 긷고 나무 하는게 묘도 아닌게 없고
밭갈고 씨뿌리는게 모두 선기라고 하는것은
하루종일 퍼질러 앉아 다리꼬고 있어야 비로소 공부가 되고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과 다르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나에게도 불성있다' 믿고

구암스님 〈광덕암 주지〉



- 1918년 목포 生
- 악 · 효봉스님을 은사로 송무 미래사에서 출가
- 력 · 60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 수지
- 해인사 15안거성만을 비롯 동화사 통도사 등 제방선원서 수행
- 72년부터 78년 천축사 무문관서 6년 두문불출 정진

또 한해가 바뀌어 나이 팔순에 접어들고 보니 그간 지내 온 나날들이 한바탕의 꿈인가 싶습니다.

출가 이후 나는 견성이란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며 참선수행에 몰두해 왔습니다. 출가때는 주지 노릇이나 남 앞에 나서는 일을 생각지도 않았건만 5년전에 피치 못할 인연으로 이 광덕암의 주지를 맡았습니다. 뒤늦게 대승보살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교의 현장으로 뛰어 들고 보니 번잡스러움이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원래 수행자는 오직 일념정진만 해야 하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람을 수호하고 도량을 청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중생들에게 지혜와 복을 심어주는 인연도 수행이라면 큰 수행이 아닐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지 노릇을 해보니 도량을 호지하는데는 스님의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힘이 균형있게 모아져야 한다는 걸 알겠더군요. 세상사가 다 그러하겠지만 도량을 잘 이끌어 가는데도 협력과 이해와 사랑과 양보 그리고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해도 각자의 도량을 최고로 가꾸는데 전력하여 성불의 인연을 심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나는 법문을 할때마다 '매번 그말이 그 말'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매번 거의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화두 하나 놓치지 말고 일념정진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붙자의 목표라는 말이 그것이지요. 참선수행으로 자신의 근본자리를 깨달아 견성하자는 목표가 하나이니 나의 법문도 늘 하나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자님들 가운데 성철(性徹)스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도들이 친견을 원하면 법당에서 3천배를 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가졌던 스님을 나도 뵈온 적이 있습니다. 나도 수행자 노릇을 하는 입장이라 3천배를 하지 않아도 스님을 뵐 수야 있었겠지만 남들이 다 3천배를 하고 스님을 뵙는데 나라고 그냥 뵙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나도 3천배를 하고나서 뵈었습니다. 밤 아홉시에 법당에 들어가 다음날 도량석을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절만하니까 3천배를 하겠더군요. 아침녘에 스님방에 들어가 절을 올리고 물었지요.

"스님 어떻게하면 수행자 노릇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지만 잘 지키게나. 그 네가지란 밥을 적게 먹으라는 것과 남의 책을 보지 말라는 것 그리고 돌아 다니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일세."

그날 이 한마디의 가르침이 내 평생 수행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 자신을 믿으며 그 네가지 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던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 또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 모두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말 보다는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 더 맞는 겁니다. 불교는 자신의 불성(佛性)자리를 믿고 그걸 알아내어 마침내는 불성의 삶(이것이 곧 부처를 이룬 자리)을 살고자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되 이 풍랑에 뒤덮힌 바다와 같은 세상을 이리저리 살아가는 육신으로서의 자신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자기에게 오롯이 머금어진 불성 곧 부처의 성품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갖추어진 불성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는 자신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목숨걸고 고행하셨듯 우리도 生과 死 두 글자 목에 걸고 번뇌망상 떨치는 정진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병 든 사람이 의사를 믿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면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믿는 한 곳에 자신을 꼭 매어 두고 일념정진하면 마침내 중생고의 모든 번뇌망상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념정진이란 생과 사를 걸고 하는 무서운 정진이어야 합니다. 재가자들에게야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목숨을 걸고 고행하셨듯이 우리도 생사(生死) 두 글자를 목에다 걸어 놓고 정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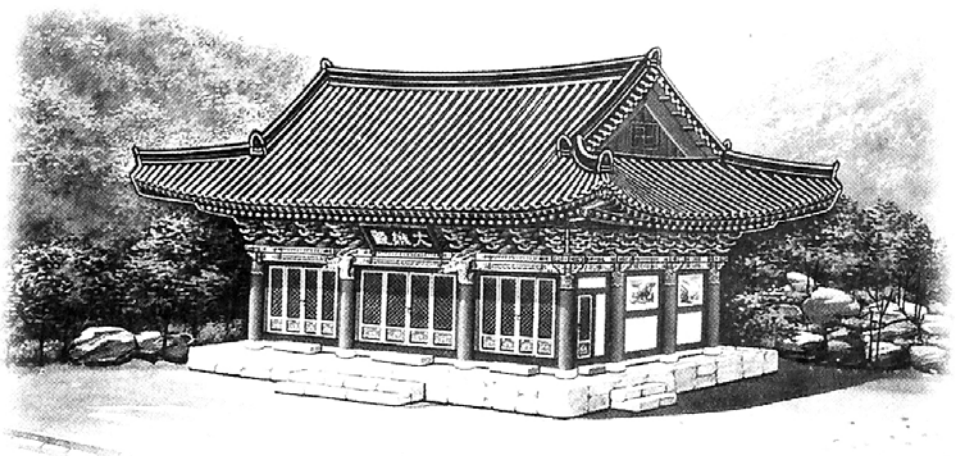
나는 20여년전에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 두문불출 정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벽에 생사 두 글자를 써 놓고 6년간 문 밖을 한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무서운 결사였지요. 제2회 결사에서 나와 원공스님이 성만했고 그에 앞서서는 관응스님과 제선스님이 성만했습니다. 그리고 무문관 결사가 없어졌지요. 요새는 6년은 고사하고 6개월 두문불출 정진도 힘겹다고 하고 3개월 안거 수행에서도 탈락자가 더러 있다니 수행의 매서운 기운이 많이 무뎌지긴 했나 봅니다.

무문관이 다 지어지고 낙성 기념으로 1백일 특별 정진을 하고 거기서 다섯명의 수좌를 골라 6년 정진결사에 들어간다는 서찰이 전국의 선방에 돌았습니다. 65년의 일로 기억 되는데 나는 그때 동화사 금당선원에 있었습니다. 금당선원에는 8명의 납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막상 무문관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노라고 했더니 아직 그럴만큼 수행이 익지 않았다고 말리더군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 연륜을 따질 것은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지난해 입적하신 서운스님에게 추천서를 받아들고 도봉산으로 갔던 겁니다. 모두 28명의 선객이 1백일 특별정진에 들어 갔고 나도 그틈에 끼어 무사히 회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로 두문불출의 6년 정진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근기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우선 천축사의 동구밖을 안 나가는 동구불출 정진을 3년간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은 찬란한 불교 문화를위한 전문업체 입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벽한 기획, 설계, 디자인으로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불,사찰건축,건설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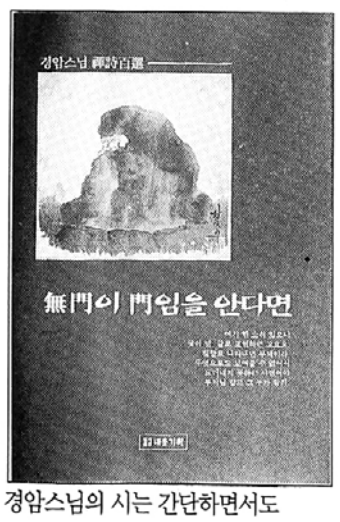
株式會社 斗豊産業 대표 02) 432-7777
doo poong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 B/D) 전화 02) 439-3900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으로나마 알게된다.
— 장이두스님 발문 중에서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갇힘을 보고

눈 푸른 납자(衲子)는 꿈 깨어
희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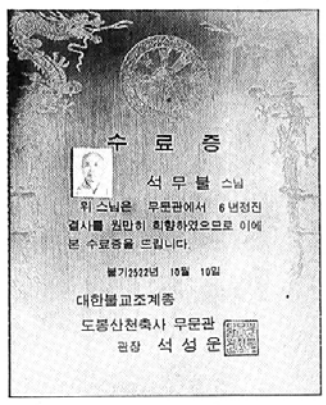
〈정가 10,000원〉

큰 스님 수행한담

일념정진 할때 중생병 치료

"무문관 6년 그때 성불하셨는지요"
"그런건 묻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아니죠 말로 표현하면 부처아닌 중생 없는데 무슨말을 듣고 싶습니까"





◇1978년(불기 2522년) 무문관 6년 수행을 성만하고 받은 수료증.

◇72년부터 6년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두문불출 정진을 하고있는 구암스님. 머리와 수염이 길어 운동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였지만 '이뭐꼬' 화두풀이에 몰입하다보니 6년 세월도 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아닌 비추는 '나'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동안에 관응스님과 제선스님이 두문불출 정진을 하셨던 겁니다.

72년에 나는 6년 두문불출 정진결사에 들어 갔습니다. 무문관의 방은 넓이 아홉 자와 길이 열자의 큰방이고 그 방에서 다시 세칸으로 나누어져 두 칸은 원공스님과 내가 정진하는 방이고 한 칸은 배설하고 씻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고 6년을 살며 오직 화두만을 들고 건강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정진했던 것입니다. 공양시간이 되면 조그만 구멍으로 식사가 들어 오고 다 먹으면 다시 그 구멍으로 빈 그릇이 나가는, 교도소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살았던 겁니다. 머리와 수염이 자랄대로 자랐지만 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3년간을 기르다 보니 운동하는데도 걸리고 씻는데도 걸리고 그러더군요. 역시 수행하려면 머리를 깎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의 내 이름은 무불(無不)이었는데 처음의 정지(정智)라는 이름을 버리고 내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문관 정진을 마치고 나오며 나는 '이제 무불은 죽었다'는 생각에 구암(九庵)이란 이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왜 무불이 죽었다고 생각했느냐. 무문관 정진은 그 자체가 생과 사를 걸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어 살던 그렇지 못해 죽던 둘 중의 하나가 된다는 각오의 정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정진을 다 마치고 나니 나는 죽어 있더란 말입니다. 성불을 해도 죽고 못해도 죽는 자리에 내가 홀로 서 있었기에 나는 스스로 이름을 죽이고 새 이름을 취했습니다.

내가 무문관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요.

"스님, 그럼 스님은 그때 성불을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그런건 묻는 것도 아니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래도 6년이나 정진하셨는데 뭔가 얻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얻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왜 자꾸 묻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되고 말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부처 아닌 중생이 없는데 부처 못 이룬 중생이 있을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듯 진심으로 자신에게 갖추어진 불성자리를 믿고 정진하는 가운데서 무명의 자물통을 여는 쇳대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가 쇳대가 되어 잠궈진 자물통을 한방에 부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보지 말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나는 철저히 지켰는데 그것도 한 방편이었기에 지금 책 안본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곽 잠궈진 이 자물통을 여는 데는 여러 방편이 있고 그걸 일심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여러 방편 중에 으뜸이 마음공부요 마음공부의 으뜸은 참선수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는 무문관 정진도 성만했고 지금까지 참선수행을 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참선수행 가운데서도 화두참선을 권합니다.

'이 뭐꼬'라는 화두를 들고 참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를 일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뭐꼬' 화두를 드는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화두입니다. 아직 참구가 일어나지 않은 화두로서 이 같은 경우를 사구(死句)라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구라도 일념으로 계속 들다 보면 깨달음의 소식이 깃들어지고 사구에 생명이 불어 넣어져 활구(活句)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이 뭐꼬' 즉 '이것이 무엇인고'를 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것'이라는 대상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이것이 무엇인고, 마음이라는 이것이 무엇인고, 물(物)이라는 이것이 무엇인고, 감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등과 같이 바깥 대상세계를 잡고 '이 뭐꼬'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바깥 대상세계에 대한 지혜가 열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견(見)의 단계이지 관(觀)의 단계가 아닙니다. 화두는 관하는 것이지 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은 육안과 업식으로 보는 것이고 관은 심안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은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을 보며, 기울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보는 것이며, 절대평등을 보는 것입니다. 또 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아를 보는 것이고 손익과 생사와 선악의 단면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관의 단계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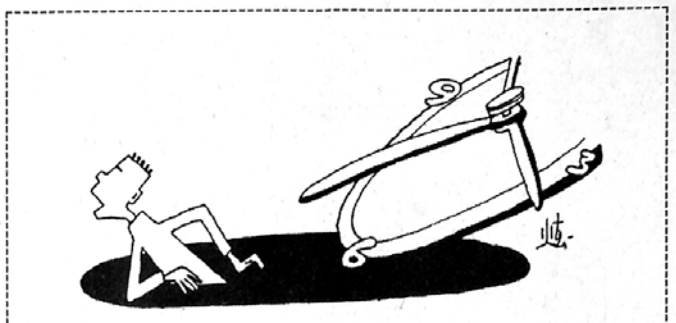
이 단계가 지나면 '이 뭐꼬'의 '이것'이 바깥에서 주인자리로 환지본처하게 됩니다. 회광반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뭐꼬'에서 '보는 이것이 무엇인고' '비추는 이것이 무엇인고' 등의 주인자리를 참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번째 단계로서 참구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를 놓고 무엇인고에 초점을 맞추면 수많은 이해가 열리고 이치가 꿰뚫어 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실상자리가 막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교리적 사변이고 학리적 논리이지 본래성품의 드러남이 아닙니다. 초점을 '무엇'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맞춰야 합니다. 진정한 실상과 주인공인 부처자리는 '이것'에 있습니다. 최상승 화두는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드러내야 하는 실천수행인 것입니다. 초점을 '이것'에 맞추면 더이상의 머리굴림이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실천이면서 드러내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가 드러나며 거울에 비추는 자가 드러납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추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인식하는 이 놈이 무엇인고'하고 참구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신의 자리 그 오롯한 불성의 자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생사를 거는 정신으로 화두를 붙들고 살아가는 매 순간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벽두, 어쭙지않은 이야기로 귀를 아프게 하는 이 늙은이는 누구이고 늙은이의 말을 듣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9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①

원시불교 물질관

4대 물질관 우파니샤드시대 등장
부처님 "일체는 12처에 포섭된다"

불교와 과학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다. 불교는 부파불교시대 많은 논장을 저술하여 학문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과학은 오랫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기껏 3,4백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전성기에 들어서 있어 여러 다른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물질 관에 있어서 불교와 자연과학의 관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불경은 방대하여 불교의 일관된 주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나라는 대승사상에 압도되어 있어 불교의 다른 사상은 거의 파묻혀 있다. 그래서 물교를 이해함에 있어 가능한 원시불교에서부터 그후 변천을 살펴보면서 균형을 잡아 보려고 한다. 과학의 이해는 별로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 가끔 과학에도 상반된 주장이 있긴 하나 드물다. 과학은 실증적이어야 함으로 틀리면 즉각 수정된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15세기 바라문(婆羅門)문화가 시작하면서 신의 개념이 나타나고 신은 天, 空, 地의 3계에 33신이 있었다. 이 때는 물질은 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 바라문교는 철학적으로 심화되고 우파니샤드시대에 오면 4大의 개념이 나타난다. 우파니샤드는 태초에 유일한 유(有)가 있어 그것이 욕심을 일으켜 地, 水, 火, 風의 4대 요소를 만들고 나아가 복잡한 복합물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물질의 4원소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변하여 많은 것(多)이 되고 그 하나가 많은 것 속에 들어 가 본질이 된다는 전변설(轉變說)을 주장한다.

세존시대는 사상적으로 대단히 활발했던 시기로 다양한 사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전통 사상을 비판하는 사문계열의 자유 사상가들로서 62견(見) 363 논쟁가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들 중 불전에 전해지는 사상가들로서 특히 6사외도가 유명하다. 이중 고살라는 대표적 인물로 모든 생명은 12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 수, 화, 풍, 영혼, 허공, 득, 실, 고, 락, 생, 사이다. 이 중 허공은 11요소를 성립시키는 장소이다. 업을 부정하고 생사윤회도, 해탈도 무인, 무연이며 인간의 의지는 무력하다고 주장했다.

나타풋타는 자이나교주로 마하비라(大雄) 또는 지나(승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석존과 유사한 환경에 있었으며 그는 모든 존재는 명(命, 영혼)과 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비명의 한 요소로 물질을 들고 있다.

이들은 바라문의 사상에 반대하여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는 물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런 요소들이 취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문의 전변설에 대해 적취(積聚)설 또는 집적(積集)설이라고 한다. 수행방법은 바라문이 전변설로 선정을 닦아 해탈을 얻고자 함에 비해 사문계열은 대체로 유물론적이고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신이 육체의 지배를 받아 더렵혀지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 정신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석존은 전변설과 직집설을 모두 버리고 독자적인 관점을 편다.

석존은 특별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나 12처(處)설로 물질관을 엿볼 수 있다. 석존은 "바라문이여, 일체는 12처에 포섭되는 것이니, 곧 눈과 색,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 만일 12처를 떠나 일체를 설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만 언설일 뿐이고 물어봐야 모르고 의심만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12처란 6근, 6경으로 6根은 眼, 耳, 鼻, 舌, 身, 意이고 6境은 色, 聲, 香, 味, 觸, 法이다. 이 12처는 인식체와 피인식체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다. 피인식체인 경계를 인식체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필자소개
- 62년 조선대 수학과 졸업
- 美 신시나티대학 이학박사, 美 SRI연구 객원연구원
-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 現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고은 불교대하소설



비몽사몽

여기는 다시 무욕도.

문득 우녀는 소석에게서 한번도 이성(異性)에 닿아본 적 없는 숫된 처녀의 그 비릿한 체취를 맡았다. 그런 싱그러운 처녀의 체취 따위에 걸리노라면 우녀도 벌써 나이가 지긋해져 있는 것인지 모른다.

지난 날의 제물포 저자에 떠돌을 때의 실성한 낭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머리 위 검불이 붙어있는 낭자의 자취는 이제 우녀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대로 무르익은 젊은 여자의 관능이 성긴 무명옷으로 가리어졌거니와 그런 관능과 함께 깊은 수행의 기운이 풍겨서 어떤 남자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다.

누가 그녀에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什麼處來)라고 물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무욕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지도 않았던 세월이었다.

그녀에게는 인담도 너무 잘 아는 사이여서 마치 인담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지난 날이나 요즘이나 이 도량에서 그녀의 옷자락이 걸린 데가 없었다. 그럼게도 오래동안 들어온 파도소리도 이제 그녀의 귓가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의 염불선을 착실하게 따라 공부하는 소석행자에게서 문득 한 슨결한 등정(鄧眞)을 냄새맡게 된 것이었다.

"내 육근(六根)이 아직도 이렇게 사납다니… 원 … 벌꿀이기도 하지"라고 그녀는 다시 무욕도.

문득 우녀는 소석에게서 한번도 이성(異性)에 닿아본 적 없는 숫된 처녀의 그 비릿한 체취를 맡았다. 그런 싱그러운 처녀의 체취 따위에 걸리노라면 우녀도 벌써 나이가 지긋해져 있는 것인지 모른다.

지난 날의 제물포 저자에 떠돌을 때의 실성한 낭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머리 위 검불이 붙어있는 낭자의 자취는 이제 우녀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대로 무르익은 젊은 여자의 관능이 성긴 무명옷으로 가리어졌거니와 그런 관능과 함께 깊은 수행의 기운이 풍겨서 어떤 남자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다.

누가 그녀에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什麼處來)라고 물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무욕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지도 않았던 세월이었다.

그녀에게는 인담도 너무 잘 아는 사이여서 마치 인담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지난 날이나 요즘이나 이 도량에서 그녀의 옷자락이 걸린 데가 없었다. 그럼게도 오래동안 들어온 파도소리도 이제 그녀의 귓가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의 염불선을 착실하게 따라 공부하는 소석행자에게서 문득 한 슨결한 등정(鄧眞)을 냄새맡게 된 것이었다.

"내 육근(六根)이 아직도 이렇게 사납다니… 원 … 벌꿀이기도 하지"라고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그것은 마치 백암록(碧巖錄)의 한군데에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얽매인다(無處成滯)'의 말이 어느덧 그녀 앞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는 바가 아니었다.

며칠전 아산현감의 소실인 미명(冒鳴)이 쌀과 잡곡을 둘 두폭짜리 배에 가득 싣고 왔었다. 그녀는 본디 온양온천의 16세 기생이었는데 현감의 눈에 들어 소실로 들어앉혀 동헌의 시간보다 그녀와의 시간으로 소임을 다하게 되었다.

눈썹이 운다는 뜻의 이름 못지않게 그 청초가련과 요염이 뒤섞인 기생 앞에서 중년의 현감은 비로소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현감은 그녀를 품에 안고 있어도 그것으로 모자라 "내 미명이" "내 미명이" 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애지증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녀는 한편으로 늘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야릇한 공허감을 어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현감의 배려로 비단도 보석도 자꾸 쌓여졌다.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이 생겼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이야 아산현이나 그곳에 인접한 곳에서 하나를 걷어오는 것인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어린 내가 세상의 물건을 빼앗는 씨앗이 될 바에는… 차라리 가야산이나 덕숭산이 아니거든… 그렇지… 저 바다 위 무욕도의 암자에라도 건너가버리고 싶어라."

이런 넋두리를 자꾸 일삼았다. 이제 무욕도는 서산은 고사하고 아산 안성 공주 그리고 수원성 안까지도 알려져 뜻있는 사람들의 수행에 비쳐지고 있었다.

바로 가생으로 팔려온 첫날 온양을 지나가던 수월이라는 권력승이 그녀가 있는 술집 주모에게 극락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갔을 때부터 그녀는 불법에 기울어졌던 것이다.

"스님, 어디에 극락이 있습니까? 정말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극락정토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가보시지요."

이 대답이 바로 수월의 심겁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다.

"그럼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할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수월의 말에 만만치 않은 주모와 주모영감은 불쾌이거니와 새로 온 아이기녀도 새삼 수월을 발칠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수월은 그 술집에서 바로 떠났다.

"나도 극락인지 지옥인지 그런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그 뒷모습은 북쪽으로 난 길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바로 그런 수월의 뒷모습이 앳된 가슴 속에 새겨진 이래 미명에게는 불법의 씨가 트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가 아산현감의 눈에 들기 위한 아전들의 미색 찾기에 걸려들어 동헌에 진상되었을 때 현감은 "이제야 내가 원하던 것이 나타났도다!" 라는 찬탄과 함께 바로 그 기녀 미명을 소실로 들어앉혔던 것이다.

그녀의 귀에 무욕도 얘기가 들린 것은 그곳 출신의 수월과 전혀 상관없었다.



109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도리천의 불이와 합두가 묻자
우녀의 등골에는 땀이…

보시오."

현감의 애첩 미명은 공양미를 푼 빈 배로 돌아가며 언제까지나 무욕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 미명이 왔다 간 뒤 그 미명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는지 차맛이 아주 여린 차잎을 뜯은 것에서 우러나듯 여자도 점음으로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는 생각이 우녀에게 잠깐 깃들었던 것이다.

바로 그 생각이 이어져서 이제까지 몰라보았던 소석행자의 그 숫된 처녀의 체취까지 맡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녀는 소석을 불렀다.

"석행자! 요새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우녀의 말 끝에는 바늘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이렇게 차가운 말투는 없었던 것이다.

그 말투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지 소석이 그 보름달 같은 얼굴을 대번에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고개를 떨구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녀의 온몸이 옷 속에서 아득히 떨고 있었다.

우녀는 정확하였다. 현감의 소실이 다녀간 뒤 소석행자의 마음은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단조롭고 답답한 느낌이 일어난 것과 함께 그녀도 현감의 여자처럼 육지로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녀가 지적한 것이어서 그녀는 어쩔줄 몰랐다.

하지만 그런 소석을 우녀는 바로 달랬다.

"관찬아… 나도 석행자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지…."

우녀는 소석을 마치 언니가 동생을 비바람 속에서 껴안는 것처럼 안아보았다.

"좋은 때다… 좋은 도량이다… 이런 도량에 부처를 앉혀야겠지… 우리 석행자!"

처럼 될 수 있다지?" 라고 소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밤이 다하는 새벽녘이었다. 우녀는 깊은 잠이 차츰 얕는 데로 옮겨지더니 비몽사몽의 상태로 되었다.

어느새 소석도 새근거리며 잘 자고 있었다.

우녀의 비몽사몽 가운데에 바로 도리천의 합두와 불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크게 보아 한 세계인 욕계안에 도리천이 있고 그 아래의 7산8해 밖의 바다에 떠있는 섬부주의 한군데에 있는 무욕도가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수미산 중턱의 하늘 속에 떠있는 욕계와 저 아래 바다 위에 떠있는 욕계는 그야말로 서로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멀고 먼 거리인 것이다.

그런 도리천에 머물고 있는 지난날의 두 사람을 우녀의 비몽사몽은 만나고 있었다.

꿈이란 어찌 먼 곳이 그저 먼 곳일 뿐이겠는가. 아무리 멀고 먼 곳일지라도 바로 곁에 앉아있는 친구의 곳일 수 있는 것이 꿈속이 아닌가.

우녀는 합두를 불렀다. 합두가 불이와 구름 속의 장난에 열중해 있다가 우녀의 목소리를 듣고 힘끗 우녀쪽의 무욕도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어머나… 우녀보살님!" 하고 합두가 무척 놀라며 반가워 하였다.

"어머나 어머나 우녀보살님! 얼마만이어요?"

합두는 마구 말을 쏟아보냈다.

우녀도 그런 아름다운 합두의 목소리에 천상의 향기가 묻어 오는 것 때문에 몹시 기뻤다.

하지만 그녀들 사이는 너무 멀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서로 얼싸안을 수도 없었다.

이런 수월의 말에 만만치 않은 주모와 주모영감은 불쾌이거니와 새로 온 아이기녀도 새삼 수월을 발칠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수월은 그 술집에서 바로 떠났다.

"나도 극락인지 지옥인지 그런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그 뒷모습은 북쪽으로 난 길 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바로 그런 수월의 뒷모습이 앳된 가슴 속에 새겨진 이래 미명에게는 불법의 씨가 트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가 아산현감의 눈에 들기 위한 아전들의 미색 찾기에 걸려들어 동헌에 진상되었을 때 현감은 "이제야 내가 원하던 것이 나타났도다!" 라는 찬탄과 함께 바로 그 기녀 미명을 소실로 들어앉혔던 것이다.

그녀의 귀에 무욕도 얘기가 들린 것은 그곳 출신의 수월과 전혀 상관없었다.

"윤회는 억겁의 전생부터 억겁의 내생으로 이어지는 공부"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단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특수 매리군의 상업적 위배되는 내용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양해하십시오.

문의
(02)737-8881(공근국)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포교당 안내(하실분)
●위치 : 도봉구 수유리
●보증금 : 3천만원
●시설비 : 2천만원(월세30만원)
※ 상담후 절충가능
전 화 : 3492-4678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작은 암자가 비어 있는 관계로 조용히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방3칸, 법당, 산신각
충남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용주암
연락처 : 0459-953-1190

20년 전통의 포방업소
여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광화 14호)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 초혼 : 의사, 박사, 약사 판·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 재혼전문
■ 엘리트 결혼·중매
■ 책임성혼
문의 전화 | 주간 (02)783-1777 야간 (0343)47-1046

사찰 운영하실 분
스님 신병상의 이유로
포교원을 급히 정리
하고자 하오니
포교에 뜻이 있는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032-519-3597
514-1616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전문시술원
좌골 신경통 (3회금)
張三洙 합장
543/7306 711/4370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됨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5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좁각 목전팀
• 충청(심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영무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상
• 가산(선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선신사) : 대웅전수미단닫집경상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좁각,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 |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사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법상등외
심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좁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학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당 안내
포교원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위치 : 부산 동래구청옆
●실평수 : 24평
●전세금 : 4100 (월세가능)
연락처 : 051-747-385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 원 사
신심이 돈독한 분 (50-60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전화 0331-262-0606

그림 · 조향숙

'97 신행 캘린더

365일 날마다 부처님 세상

▷표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행사

불교계는 97년을 '전법의 해'로 열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자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눈앞에 둔 21세기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지혜롭게 맞이하자는 이 원력은 갖가지 뜻깊은 행사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신행포교지를 표방하며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앞장서 이끌어온 본지는 97년 신행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았다. 이 '신행캘린더'는 작게는 개개인 불자로 부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에 한국불교의 97년 신행문화현상과 활동을 미리 가늠하고 참여토록 안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365일 날마다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월	일	행사명
1	15	재가단체 신년하례법회
		맑고향기롭게모임 동학사 사찰환경생태 기행
		제1회 불교문학상 시상식
	15~17	고교생을 위한 우리문화유산얽기 답사(02-712-5812)
	16~22	생명나눔실천회 이웃을 위한 한가위문등
	17	만해상 시상식
	18	조계종 제8회 포교대상 시상식(02-720-7060)
	19	경불련 네팔불자모임 설맞이행사 LOSSA
	21	동화사 기초선원중심도량 현판식
	22~24	중학생을 위한 우리문화유산얽기답사(02-712-5812)
	24	불교시민단체 신년하례회(02-735-5558)
	▷	조계종 전법의 해 선포식(02-773-4749)
	▷	능인선원 제10회 능인예술제(02-554-8412)
	25	조계종 '민족은 하나' 동체대비 자선탁발(02-735-5864)
	28	경승 10주년 기념법회(02-720-7060)
2	22	동안거 해제일
	27	조계종 한민족 공동체모금 대법회(02-737-9684)
	▷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02-732-4885)
	▷	청교련 서울지부 '붓다의 메아리' 공연(02-735-8165)
	▷	불교청주방송 개국(0431-294-5116)
3	1	대한불교청년회 제18회 만해백일장
	8	세계 승가공동체 국제학술대회(02-765-9602)
	▷	대한불교청년회 만해대학 개강(02-738-3366)
	▷	태고종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02-745-2030)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은행나무심기(02-723-6258)
	16	부처님 출가일(불교도 경건주간)
	19~26	제17회 불교미술대전
	23	부처님 열반일(불교도 경건주간)
4	3	제주 관음사 '제주도 4·3사건 망혼 위령제'
	5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
	▷	천태 예술제(0344-20-3399)
	▷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학술세미나(02-260-3426)
	▷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환경캠페인(02-741-4696)
	▷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0599-31-1001)
5	▷	송광사 제787회 보조국사 증재(0661-755-0107)
	▷	원효종 원효성사 열반 1311주기 추모대재(02-735-0501)
	1~3	송광사 3월불사 보살계수계식(0661-755-0107)
	6	동국대 개교기념법회(02-260-3114)
	10	차생활문화원 고려연등의식 재연(02-3672-4030)
	14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02-725-6641)
	17	차생활문화원 제2회 다시(茶詩) 백일장(02-3672-4030)
	▷	전방 OP 점등식(02-725-6641)
	18	진각종 제96회 종조탄생절 기념법회
	21	하안거 결제일
	▷	구룡사 제5회 합동결혼식(02-575-7766)
	▷	분황사 제2회 원효문예대제전(0561-42-9922)
	▷	정토포교원 전국 청년불자 등반대회(02-525-7264)
	5~31	가정의달 청소년의달 행사
		대방종합복지관 가족잔치마당(02-817-9881)
		대구불교대학 가족찬불가 경연대회
		부산 삼광사 제7회 삼광경로잔치
		법동사회복지관 '철순·팔순 합동잔치(042-633-1141)
		목동청소년회관 청소년백일장 및 수계법회
		청교련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02-645-1957)
		보현사 제4회 연꽃노인잔치
		대구 법왕사 제6회 경로잔치 한마당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대회(0561-746-9912)
		범어사 연꽃백일장 및 사생대회(051-508-3122)
6	▷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정기회원전(032-663-7771)
	▷	제22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2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제23기 열반대재
	▷	범어사 단오 고당재(051-508-3122)
	▷	대한불교청년회 제16차 청년대회(02-738-3366)
	5~7	조계종 환경한마당(02-735-5864)
	9	봉원사 제9회 영산재 사연(02-392-3007)
	11~14	천태 지자대사 1400주기 한·중·일 열반대재
	21	진각종 창교절 기념법회(02-913-0751)
7	▷	청소년교화연합회 문화캠프(02-735-8165)
	25	불자교사연수회(02-720-7060~4)
	26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문화캠프(02-735-8165)
	▷	각단체 하계수련회(8월까지)
8	1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하계 캠프(02-761-9400)
	▷	만해사상실천회 만해시인학교(02-736-8320)
	▷	제2회 불자교사연수회(02-3411-6167)
	6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연합캠프(02-723-6165)
	7	한국불교연구원 전국 교사불교연수회(02-341-6167)
	11	광주불교 산악회 정기 산행법회(062-952-4772)
	15	광복절 통일기원법회
	17	하안거해제일, 백중, 우란분절
		석왕사 외국인 노동자 백중법회(032-663-7771)
		봉은사 생명해방대축제(02-511-6070)
9	7	경주 천경림 흥륜사 이차돈성사 추모대재
	14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창립2주 기념법회
		신한국당불교신도회 창립2주 기념법회
	16	국민회의 연등회 창립2주 기념법회(02-788-2149)
	22	대불련 공주지부 창립기념 문화제
	23	한국불교음악연구회 합창과 가곡의 대향연
	▷	조계종 전법대회(02-735-5861)
10	3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중흥사, 태고보우국사 탄신기념법회
	▷	범종교문화예술축제(02-739-1830)
	7	진각종 종조열반절(02-913-0751)
	14~21	성철스님 열반 4주기 추모재(0599-31-1001)
	17	표충사 3대(서산·사명·기허)화상 추계향사
	19	통도사 개산대재
	22	태고보우국사 다례식
	29	선암사 대각국사 탄신기념제
	▷	'97 대한민국 종교음악제(02-705-5114)
	▷	제14회 방송작가 초청 불교학술세미나(02-720-7060)
11	14	동안거 결제일
	15	창작 찬불가 경연대회
	29	군불교진흥회 군승의날 기념식(02-749-5135)
	▷	제19회 겨울불교학교 지도자강습회(02-738-7680)
12	1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교언론인의 밤(02-734-0777)
	13	부산 사하불교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051-205-9302)
	24	충지종 창교절 기념법회(02-552-1083)



월	일	행사일정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맑은나라 (대구·경북총판)
대표 유동화
취급품목
주 방 용 · 세 탁 용
목 욕 용 · 세 차 용
머리용 · 무공해세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321-7
TEL:(053)351-0620, 351-0621
FAX:(053)351-0622

◈ 수레주유소 ◈
대표 안병태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북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1342-2
TEL:(0545)975-0101

◈ 샛별문구 ◈
대표 김건우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34-4
TEL:(053)626-8257

大韓佛教 總和宗
宗 正 李東光
사서실장 남원우
元老院
원로원장 전 야 옹
원로부원장 박용운·최혜산
總務院
총무원장 전남정
총무부장 이만오 재무부장 이금오
사회부장 박시균 조직부장 황성문
규정부장 김혜암 교무부장 장일봉
종회의장 김화담 종회부의장 김혜보
감찰원장 장혜운
감찰부장 백동오 조사부장 최해정
교육원장 정혜안 교육부장 류정우
호계원장 양영수
포교원장 박청해 포교부장 조성부
문화원장 이정송 문화부장 이법해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93번지
전화 : 742-8895, 8896

◈ 용지사우나 ◈
대표 최만영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나이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462번지
TEL:(053)783-5828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분의 스님을 모십니다"
①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신비의 불탑다라니는 현재 각사암별로 스님들께서 스님 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아오나 100분의 스님들께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③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읍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책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신탑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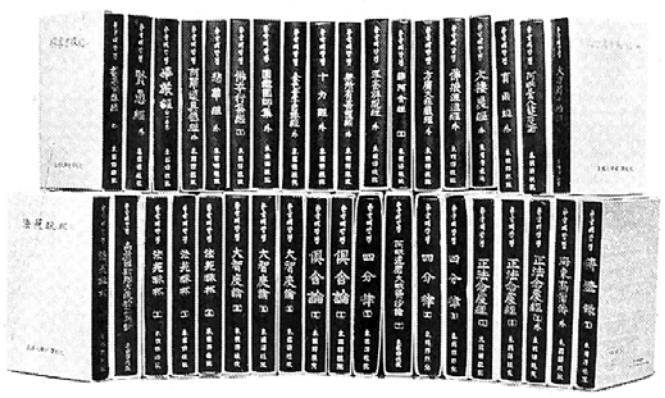
〈모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한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방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책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고로 행자(行者)는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와같이 경전을 듣고 의혹을 내지 말며 응당 일심으로 이 경전을 널리 설하면 세세에 부처님을 친견하여 불도를 속히 성취하리라" 〈묘법연화경 상불경보살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법신(法身)의 역할을 하면서 불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설법이다. 새해를 맞아 조계종이 97년을 '전법의 해'로 정함으로써 살아있는 부처님 법신인 한글대장경을 널리 보급하고 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불경의 한글화 작업은 쉽고 바른 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하고, 한국불교학 발전의 토대마련과 저변확대에 기여하리란 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난 1962년 역경이 도제양성, 포교와 함께 조계종단의 3대지표 가운데 하나로 책정된지 36년만에,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고려대장경 내년 완역

한글대장경 대중화 '눈앞'

"전법의 해 맞아 보급·읽기운동 펴자"

한문경전 선호풍토 바꿔야…편집등 보완 '발등의 불'

지 1천6백여년만에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이 고려대장경 완역(98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화 작업 못지않게 활발한 보급운동과 한글대장경 읽기 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전환, 읽기 쉽고 부담없는 디자인 개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님·신도들의 잘못된 선입견도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과 스님들이 한문으로 된 경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읽기 쉬운 한글대장경 보다는 해독이 어려운 〈대정신수대장경〉등 한문 불경을 진짜 법보(法寶)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경원 자체의 계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완벽한 번역과 교열·교정을 통해 최선의 역경을 완수함은 물론, 체계적인 홍보와 판매망을 구축해 더욱 활발한 보급운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눈을 끌 수 있는 산뜻한 편집과 읽기 쉬운 활자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조계종은 역경불사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다지려 했다. 그러나 애써 만든 한글대장경에 대해서는 번역상의 의미만 부여됐을뿐 실제 불자들에게 두루 읽히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종단과 각급사찰이 만족할만한 홍보를 해주지 않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다. 기독교가 한글화된 〈성경〉을 통해 쉬운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국내에서 급성장한 배경과 대조적이다. "경전이 방대한 만큼 일일이 집에다 비치하기 어렵다면 사찰이나 공공기관 등에 비치해 활용토록 하는것도 좋고 종단차원에서 독송대회를 정기적으로 여는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란 역경원장 월운스님의 지적은 종단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일이다.

김재경 기자

역경 어디까지 왔나

70% 진척…내년까지 260권 완역

CD롬 개발등 경전 전산화 추진

1965년 6월 30일에는 간경도감에서 역경된 책이 나온 후 5백여년만에 한글대장경 〈장아함경〉이 동국대역경원에서 최초로 역출되었다. 1964년 7월 31일 동국역경원 개원 이후 첫 번째 결실이었다. 이후 96년까지 한글대장경 197권을 출간함으로써 고려대장경 총 16만 1451면 중 70%정도가 번역되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역경원은 98년까지 총 2백60여권의 한글대장경을 간행함으로써 고려대장경 역경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한글대장경 간행사업은 1994~1997년 4년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고려대장경 번역지원금) 12억2천만원, 동국대에서 14억7천만원을 각각 보조받으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다. 역경원은 이 예산으로 미번역된 고려대장경을 매년 26권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부담으로 고려대장경에서 제외된 한역경전, 팔리어경전, 한국고승논저 10권등도 역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94년에는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곡〉등 26권, 95년에는 〈도행반야경〉등 26권, 96년에는 〈아비달마발지론 外〉등 30여권을 간행하는 성과를 내었다. 97, 98년에도 〈대승장엄경론〉 〈대승보요의론〉 등 각 30권씩을 번역 출간한다는 것. 지난 66~75년에도 국고보조를 받은 바 있는 역경원은 98년에도 국고보조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역경원은 한글대장경 간행사업과 함께 CD-ROM 개발등 전산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반불자들은 CD-ROM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경전의 한문원문과 한글번역문, 주요단어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역경원은 이를 위해 삼성대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명사추천 불서100선

무비스님 풀이 천수경

요즈음에 와서 문학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외로운 길인가를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 아니, 글을 쓴다는 것은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작업임을 새삼 느낀다.

모처럼 불교소설을 써보았었다. 불교문인협회 회장인 임영창선생이 몇해 전에 필자에게 불교에 관한 어떤 책자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자료로 불교소설 하나 만들어 보시오" 하시며 건네 받았던 것이 〈소설 관음사〉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집필에 들어가 보니 자료가 미비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불교에 대해 지식이 얕은 나로서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고승열전〉이며 〈삼국유사〉 등 불교에 관계된 책들을 다시 다방면으로 구해 탐독하는 등 참고하게 되었다. 결국 착수한 지 5년만에 집필을 끝내게 되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 〈무비스님 풀이 천수경〉(불일출판사 刊)도 이때 접한 책이다.



윤 형 복 〈소설가〉

〈천수경〉은 젊은 시절, 몸이 아파 절에 휴양을 가서 처음 귀로 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니고 다니며 독송해 온 경이 되었다. 젊은 시절 많은 풍파를 거치면서 몸이 약해지고, 문학을 하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천수경〉은 내게 잡념을 지워주고 고요와 안정, 밝은 지혜를 일러 준 법신(法身)이 되어 주었다.

〈천수경〉은 많고 많은 경전 가운데 우리와 가장 친숙한 경전중의 하나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는 물론이고 오랜 연륜이 쌓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불교 공부를 하는 동안은 내내 독송하며 만나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충의 뜻을 알고 외울뿐 깊은 뜻과 경전적인 함의는 깨우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런점에서 〈무비스님 풀이 천수경〉은 〈천수경〉에 대한 교리적인 의미와 신행의 방향을 적시해 주는 불자들의 필독서라 생각된다.

무비스님은 〈천수경〉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바람직한 삶을 제시해 주는 경전"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불자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경전이란 설명이다. 스님은 또한 "〈천수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천수경〉은 교리적인 면보다 신앙적인 색채가 짙은 경이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은 〈천수경〉이 어떤 부정하거나 꺼림직한 것들을 모두 소멸시켜 우리 자신과 주변을 청정하게 하는 위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명력이 〈천수경〉을 그토록 애송하는 경전으로 만든 한 예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리적의미·신행방향 쉽게 안내

잡념 지워주고 지혜찾는 길 제시

■ 경암스님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주옥같은 禪詩 100편 묶어



"8만 4천 법문이 곶 한 송이에 갇힘을 보고/ 눈푸른 납자(衲子)는 꿈깨어 회열로 이 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무문이 문임을 안다면' 중에서)

시인이자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인 경암스님이 禪시집 〈무문이 문임을 안다면〉(대흥기획 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시조시집인 〈낙뢰목의 여진〉 〈산승문답〉 〈시조시장경〉, 시문집 〈인연〉 〈불타의 여래〉 등에 이은 6번째 시집. '우주가 기침이 되는'등 선시 1백편을 담고 있다.

장이두스님(해동불교대학장)은 이 시집에 대해 "100편을 다 훑어봐도 인생의 근원적 괴로움으로부터 法을 찾는 법을 얻는 길에 회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시요 주옥같은 법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평했다.

출판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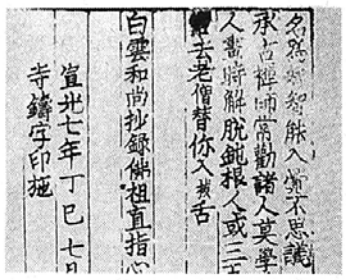
'直指' 인쇄본 찾습니다

청주시민회 '1천만원 현상'

"청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직지(直指)' 인쇄본을 공개 수배합니다."

충북 청주지역 시민운동단체인 청주시민회(상임대표 최병준)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일명 직지심경·사진) 찾기에 나섰다.

청주시민회는 최근 지방의원과 학계인사,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직지찾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15일 현판식을 가진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회는 '직지'를 처음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각계 인사의 후원금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회는 이와함께 프랑스에 보관돼 있는 '직지'를 돌려받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파리시민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3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6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7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8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9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10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2(사찰문화연구원 저)=우리나라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전통사찰총서 제 7권. 광주광역시의 신광사, 전남 곡성군의 태안사 등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41곳을 답사했다. 사찰의 연혁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성보에 깃든 의미, 그 절이 지니는 신앙의 성격, 관련설화 등을 소상히 밝혔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2천원〉

▲길에서 쓴 그림일기(이호신 저)=화가 이호신이 10여년 동안 우리 땅 곳곳을 답사하며 진흙속의 진주를 캐듯 그리며 쓴 진솔하고 감동적인 국토기행문. 이 땅의 얼이 숨쉬고 있는 자연과 인간과 전통문화유산, 그것들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진수를 찾아 그림과 글을 통해 형상화 했다. 〈현암사,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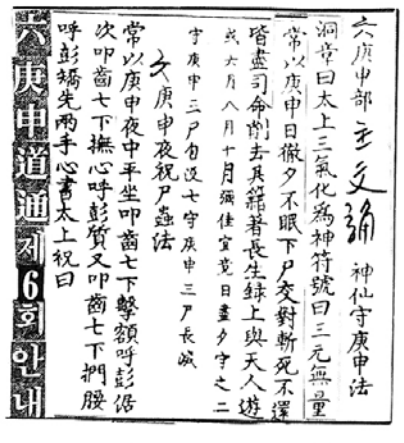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양동수 저)=모정불심(母情佛心)으로 되살아난 사형수 양동수법사의 참회록. 사형수가 된 내력에서부터 헌신적인 노모의 사랑에 감동한 박정희대통령이 무기수로 감형시켜 살아나기까지의 과정과 저자의 노모가 교도소 주변에 방을 얻어놓고 16년간을 하루같이 인근 절에서 3천배를 하고 동네의 궂은 일을 솔선해 하는등 눈물겨운 옥바라지가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사 6천5백원〉

▲그래도 우리에게 산이 있기에(김대환 저)=한국산악회 부회장 김대환박사(이대 명예교수)가 40여년간 산에 오르며 사색해 온 단상들을 모았다. 저자는 등산을 평생 습관적으로 체질화하고 있는 산악인은 언제나 산을 호흡하며 산을 통해 스스로의 인격은 물론 넓고 깊은 인간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수문 9천원〉

육신통(六庚申道通)제6회 법회 안내

大道人되는 六庚申道通 제6회 기도법회가 양력 1월17일(음12월 9일 해시)에 입제하여 1월18일 (음 초 10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동참하시여 일만이천 도인 대열에 입문합시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 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년 마지막 제6회 경신일은 동·서양 시방에 모든 영계나 시방법계 영혼들의 천문이 열려 천신삼계, 지신삼계, 영신삼계와 木火土金水日月星神 모든 비밀장을 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1만2천 道人대열에 賢知靈通 4천명 智知靈通 4천명 聖知靈通 4천명이 모두 靈界의 맡은바 분야의 심지근본에 맞게 通할수있는 기회를 참고하시여 입문하시면 누구에게나 한가지 소원은 꼭이룰수 있으며, 심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여의는 기도인 것입니다.



大道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본문

동양철학 및 기문둔갑 풍수지리 지도

■ 강의 내용
1. 동양철학 음양오행(3개월)
2. 천문지리 기문둔갑(3개월)
3. 풍수지리 음택·양택(3개월)
※ 옴마니반메홈 선체조법

■ 강의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8시

입제일 : 1997년 1월 17일(음12월 초 9일) 밤 10시
해제일 : 1997년 1월 18일(음12월 초 10일) 밤 해시
회 비 :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 02) 821-6622 · 야간 923-3110 · 휴대폰 017-236-3110
육경신도통회 태일선원장 법사 태일 합장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알찬기획 풍성…문화포교 밝다"

'97년 불교문화계 전망

해외전시 잇달아…종교화합 행사 '눈길'
3월 세계승가공동체 학술대회 '관심'
저작권법 악재로 출판시장 위축될듯

한층 다양화하고 고질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불교문화계 역시 각 장르별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계종 문화부가 독립됨에 따라 문화관장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는 문화재관련 대형 학술회의를 비롯 다양한 주제의 학술회의가 풍성할 전망이며 출판계는 계속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알찬 기획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문화동우회가 구성돼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음악·미술·연극 교계 최고의 미술작가등용문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올해는 파격적으로 오른 상금과 함께 전문전시관인 공평아트센터에서 오는 3월19일부터 개최된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일년내내 불교주제의 전시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화시대를 맞아 불미협의 덴마크전, 고명을씨 파리탱화전 등 해외에서의 전시회도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악계는 올해 대형무대가 3개 이상 준비되고 있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창작찬불가 경연대회가 오는 11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오는 9월 23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 주관으로 '찬불가합창과 가곡의 대향연'을 개최한다. 지난해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는 김희경 작곡의 국악교성곡 '물밭에 피는 꽃'도 오페라로 재편곡되어 대형극장에서 올려질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예술의 전당에서는 불교를 포함 개신교 천주교 등 각 종교가 참여하는 범종교문화예술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초의스님의 달로 지정된 5월에는 전시회, 차 세미나가 열리며 다시백일장, 고려연등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뜰앞에 잣나무'라는 중후한 연극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극단 완자무늬는 오는 6월 또한번 불교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원담스님이 쓴 심우도시리즈 제2탄이 준비중인 것. 영산재보존회는 단오날 영산재시현행사를 여법하게 치르며 이에 앞서 오는 4월에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의 초청공연도 계획되어 있다.

학술·문화재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불교학회, 한국종교학회, 한국미술사학회 등 각 학술단체가 봄, 가을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20여건 이상의 학술대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오는 3월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또 한국불교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을 비롯해 각 불교단체들이 봉축 학술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은 올해 문화재관련 행사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푸짐하다. 9월 문화재연구 학술대회를 비롯 모두 5건의 문화재관련 세미나가 계획돼 있으며, 문화유적 순례 등 범국민적 행사가 줄을 잇는다. 교계에서는 2월부터 해인사 등 8개 사찰이 성보전시관 건립에 착공하며, 성보관리자 연수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지난해 말 태동한 성보보존위원회의 활동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 올해도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발효 등의 악재를 의식, 새로운 대형 기획물보다는 기존의 시리즈물을 계속 펴내는 수준에서 조심스런 불서출판이 예상된다. 즉 자체출판과 함께 제작대행을 겸들이면서 국내 학술서 보다는 번역학술서를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법어·수필·설화집 등 가벼운 책들이 올해도 강세를 띨 전망이다

민족사는 〈한국의 고승〉(전 30권) 시리즈 원고집필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판에 들어가 99년까지 완간할 계획이다. 또 〈한국가람의 연구〉 〈한국의 불교미술〉 등 무게있는 불교미술서와 〈화엄론 절요〉의 최초번역, 〈선시 감상사전〉의 출간을 준비중이다. 불교시대사는 '불교학 세미나'시리즈 3권과 '현대고승법문집' 2권을 출간하는 한편, 〈불교의 수용과 변화〉시리즈 6권을 펴낸다.

불교영상회보사는 2달에 한권씩 〈구산선문〉시리즈를 출간하면서, 역대고승총서로 〈도선국사〉 〈원효대사〉 〈수월스님 전기〉와 〈한국불교시선전집〉 등을 펴낸다. 시공사는 시공불교총서를 계속 발간하면서 '시공불교경전' 시리즈를 새로 기획했다. 장경각은 선림고경총서 속집으로 〈오등회원〉 10권과 〈명추회요〉 3권을 출간한다.

이경숙·한명우·김재경 기자



◇지난해 11월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호응을 받은 국악교성곡 '물밭에 피는 꽃'. 올해 오페라로 편곡되어 재공연될 예정이다.

"목불조각 체계화 필생 과제죠"

무형문화재 목조각匠 지정 박찬수씨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극적으로 꿈꾸는 인간문화재가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없지만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인 것같습니다. 이번 인정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국민 모두가 삼귀의(三歸依)할 수 있는 훌륭한 성보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랍 31일자로 문화체육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로 '목조각장(木彫刻匠)'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박찬수씨(47·목아불교박물관장)는 지정번호인 108호가 공교롭게도 불교와 유난히 각별한 숫자라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한다.

지난 89년 제14회 전승공예대전에서 화려하면서도 정교하게 조각한 '법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불미전에서도 대상을 받는 등 박씨는 각종 대회 수상을 통해 이미 그 솜씨와 기량을 인정받아 온 인물.

보물 3점을 비롯 6천여점의 각종 조각품을 모은 목아불교박물관을 지난 90년 개관해 전국의 명소로 자리매김시킨 박씨는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포교에도 열심이며 불교공부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매진해 왔다.

목아박물관에 6천여 조각품 전시
"온국민 삼귀의 이끄는 성보 만들터"

두 아들이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있고 형 찬갑씨 등 5형제가 전부 조각에 전념하고 있는 예술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예불을 올린후 아침밥 먹을 때까지 4~5시간은 작업에 몰두한다는 박찬수씨는 "수많은 전화로 인해 우리 선조들이 남긴 빼어난 작품들이 대부분 소실되어 목각의 계보가 제대로 전승돼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목불조각의 계보를 장르별로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후진양성에도 전념하겠다며 목각에의 쉼없는 열정을 표출하고 있다. 〈숙〉

승무 인간문화재 이애주씨 지정



문화체육부는 구랍 31일자로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故 한영숙계열 예능보유자로 이애주씨(50·서울대 사범대 교수)를 인정했다. 7세때부터 김보남씨에게 승무와 궁중정재, 춘앵무 등을 배운 이씨는 지난 69년 한영숙씨(1920~1989)를 만나 한성준제 승무를 배우다 71년 이수자가 됐다.

이애주씨는 오는 25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한성준 춤의 재조명-이애주의 춤' 공연을 갖는다.

이번 이애주씨 인간문화재 지정은 지난 89년 한영숙선생이 타계한 후 8년만의 지정이어서 본격적인 전승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크다.

문화 소식

한국문화 CI 10종 확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12월 31일자로 한국문화를 대표할 통합이미지(CI) 대상으로 불국사 석굴암, 한복, 한글, 김치 불고기,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적 예술인 등 10가지를 최종 선정했다.

또 사물놀이 선비문화 창덕궁 후원(비원) 등 3가지는 보조 CI로 선정했다.

작가 12인 '오늘의 소'

정축년 소해를 맞아 소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갤러리 사비나(736-4371)는 오는 26일까지 김봉준 박성환 황영성 이종구 이영수 조강훈씨 등 12명의 작가가 그린 '오늘의 소'를 전시한다.

특히 김봉준씨는 '신심우도-소가 있었다'를 주제로 불교의 '십우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그림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찬불동요 창작곡 3집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화평스님)에서는 겨울불교학교용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제3집을 펴냈다.

이번 창작곡 테이프에는 제22차 겨울불교학교 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교재로 발표되는 9곡을 포함 '고요한 밤' '내마음의 눈꽃송이' '기도' '하얀 눈이 오네요' 등 모두 16곡이 들어있다.

SBS 사극 '임꺽정' 보우스님 왜곡

과연 요승이었나 "아니다"

억불정책으로 잘못 평가
승과설치 인재양성 기여

'보우스님은 과연 요승이었나.'

지난해 11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 TV의 대하사극 '임꺽정'(원작 홍명희)이 극중에서 보우스님(1515~1565)을 요승으로 표현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회분의 방영에서 보우스님은 섣부른 법경으로 우쭐대다가 갓바치 양주팔에게 혼줄이 나고 문정왕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요승으로 표현되었던 것.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탄경스님(중앙승가대 1년)은 "아무리 드라마라고 하지만 불교의 중흥조로 인식되고 있는 보우스님을 한낱 무식한 중으로 표현해 갓바치에게 오히려 혼이나고, 왕실과 결탁해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은 불교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임꺽정'의 연출자 김한영씨는 "드라마 내용의 대부분이 원작에 근거한 픽션이다. 이 드라마는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서민들의 시각에서 그려내고자 했기 때문에 보우스님 또한 상징적인 역할로 설정된 것이지 실제 불교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우스님의 역할은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드라마 '임꺽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리얼리즘 소설로 평가되고 있는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또 문정왕후를 비롯, 윤원형, 갓바치(병혜대사), 임꺽정 등 극중 인물들이 실제 그당시 거의 존재했던 인물들이라 아무리 상징적인 단역에 불과하더라도 TV라는 공중파매체의 특성상 보우스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학자 안지원씨(방송대 강사)는 "승과를 설치해 후대 불교 인재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교양종의 기틀을 바로잡아 조선불교의 명맥을 잇게한 것 등 보우스님의 공적은 크지만 당시 성리학자들의 비난과 비판에 불교적인 논리로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문정왕후의 그늘에 늘 가려 있었던 것 등이 요승으로 폄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고 설명한다.

또 불교사 연구가 정의행씨는 "보우스님이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권력욕이 강했던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요승이라는 유학자들의 지적은 다분히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결부된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보우스님의 요승논란에 대해 학계에서는 〈허응당집〉 등 스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사진은 드라마 '임꺽정'의 한 장면.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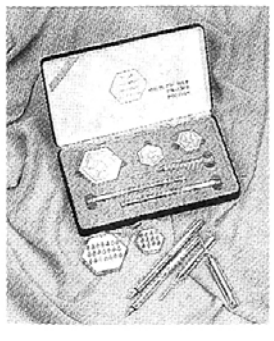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최고의 효도 상품 -
파-워봉 요법
신제품
보건복지부 허가 제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봉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요법입니다.
■ 파-워봉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체험하실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반영구적제품>
<보급형 중합셋트> 1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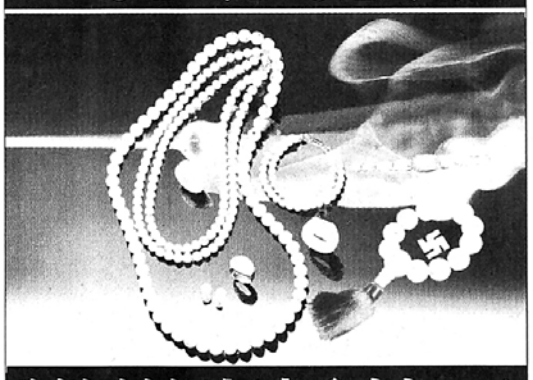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옥덜미가 항상 뻐근합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땡기십니까?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전립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합니까?

⊙ 파-워봉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研究會파워-봉 研究學會
전화문의 02) 455- 6944(대)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확실한 에너지 보충! 춘천옥산가 玉!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느끼는 현대의학을 보완합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포도자기 玉이물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회위원회



※ 약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한국 불교 전통
(범음·범패)
의식 연구원

본 연구원에서는 제반의식을 전수코자 스님 및 포교당, 사찰 운영하는 분을 모시고 실전의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제반의식(천도재, 49재, 예수재)
대령관욕, 상주권공, 요잡, 어산작법
바라춤(대다라니, 사다라니)

한국불교 전통(범음·범패) 의식연구원

문의 접수처 : 051-464-5997

석굴암 천년 신비 추적

btn·KBS '신라불심과 과학의 만남' 입체적 제시

실험통해 보수 위험성 지적…개방구조·무지갯돌 해체 주장

지극한 종교는 지극한 예술을 남기고 또 그 예술은 다시 지극한 과학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석굴암. 그것은 시공을 뛰어넘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세계임이 틀림없다. 신년벽두부터 방영된 두 편의 석굴암 다큐멘터리는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세계에 유래없는 인공석굴 석굴암을 통해 신라불교의 정신을 조명하고 나아가 불교적 진리관 우주관의 모형을 밝혀낸 불교TV의 '석굴암'(1일 방영)과석굴암에 대한 치밀한 조사로 그 본래모습을 추적, 경솔한 유적보수의 위험성을 고발한 KBS 1TV의 '원형탐구 석굴암'(5일 방영)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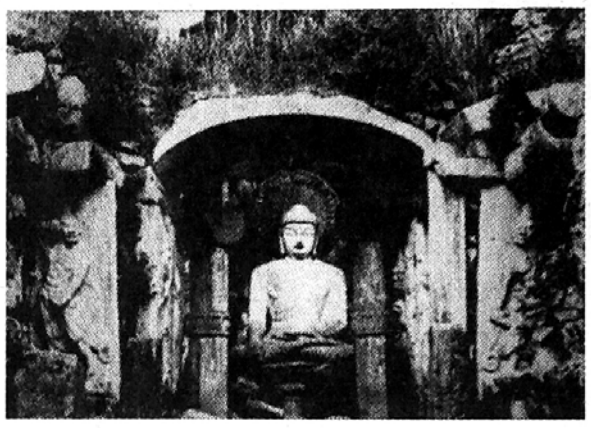
당시 건축기술이 아무리 우수했다하더라도 종교적 신심의 바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임을 단언하고 있는 불교TV의 '석굴암'은 전실 주실등의 건축구조와 불상 하나 하나의 의미까지도 되새겨냈다. 깨달음의 진리를 건축과 조각의 비례의 문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 '석굴암'은 석굴암이 바로 불교의 연기사상이며 연화장세계를 표현한 중중무진의 비례를 이땅에 실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제가 석굴암의 상징성을 퇴색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석굴암 무지갯돌의 해체야말로 불교의 정신을 되살리는 가장 상징적인 불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1TV의 '원형탐구 석굴암'은 석굴암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대거 소개, 석굴암의 원형보존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주었다.

먼저 석굴암이 지금의 폐쇄구조가 아닌 개방구조라는 점과 감실의 통풍기능을 설명하고, 지금은 사라져 버린 정면상단 창의 존재가능성을 불국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흙으로 통기성을 강조한 외벽구조, 샘물의 습기조절 효과 등의 실험은 다음 천년의 보존기법에 하나의 단서를 제시했다. 자연의 순리를 이용한 고도의 과학 앞에 현대과학의 오만이 고개 숙일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원형탐구 석굴암'은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벌어진 두 차례 보수공사의 부실을 지적, 지나간 천년과 다가올 천년의 중간에선 우리에게 과연 이 석굴암을 어떻게 무사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교TV의 '석굴암'과 KBS 1TV '원형탐구 석굴암'은 각각 다르게 제작되어었지만 석굴암의 신앙적 의의를 조명한 1부와 원형탐구를 통한 보존의 문제를 조명한 2부로 다시 엮어내도 한편의 훌륭한 연작 다큐멘터리가 됨직하다는 것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의견이다.

이은자 기자



◇비례의 미를 통해 불교적 진리세계를 구현해낸 석굴암의 원형탐구와 보존은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있다. 사진은 1913년 일제에 의한 첫 보수공사 직전의 석굴암 원형모습.

16일 성도절 특집

불교TV △다큐멘터리 성도의 땅-부다가야(16일 낮 12시10분)=인도 갠지즈강의 지류인 팔구다니강에 임해있는 부다가야. 불교의 4대 성지중의 하나인 부처님 성도의 땅 부다가야를 찾아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본다.

△TV신행상담 '깨달음이란'(16일 오전 11시10분)=법련사 신도들과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교수가 출연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도절에 관련된 궁금증등을 풀어본다.

불교방송 △'깨달음의 빛 생명의길을 따라서'(16일 오후 5시10분)=성도일을 맞아서 부처님성도의 의미를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이 설명하고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고려사의 성도재일 표정과 도심포교당의 철야수행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깨달음의 빛 온누리에'(16일 오전 10시5분)=고승대덕 스님을 초청, 법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불교적 지혜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법을 들어본다.

천태 지자대사 1400주년 열반재

한중일 합동 개최

6월 11~14일 한국서…구인사에 통일 평화碑 건립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한중일 3국 대표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를 열고 '천태대사 1400주년 대원기 3국 천태종 합동법요식'을 한국에서 봉행키로 결의했다.

삼국대표 독경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회의에서 한국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중국 국청사주지 가명스님 일본 연력사 부집행 이마데가와 교운스님등 3국천태종 대표스님들은 천태대사 1400주년 대원기 3국천태종 합동법요식을 오는 6월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 한국에서 개최키로하고 일정과 참가예상 인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에 세워진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비석을 구인사에도 건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3국천태종의 친선교류를 구체화하기위한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이 논의됐으나 추후 결정키로했다. 한중일 3국 천태종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국제 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남부 웨일즈의 울릉공 시에 있는 남천사 대법당. 남반구에서 가장 거대하다는 남천사의 위용은 호주 불교 인구의 급성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만 호주인 불교심취

"정신적 안식처로"…정법사등 한국사찰 3곳

최근 호주 불교인구가 지난 15년간 3만5천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가해 약 500%의 급성장을 보였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호주 불교의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에 놀라움을 표한 호주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과 호주에 팽배하고 있는 세기말적 증후군과 연결짓는 등 불교급증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호주 불교의 역사〉 편저자인 필립 휴스(P. Hughes)는 "서구사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용주의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이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 등을 통해 폭발직전 상태의 긴장감을 풀고 정신적 해방감을 얻고 있다"고 불교 증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세계최초로 안락사법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환자 증가, 인종차별 논쟁 등이 세기말적 증후군을 형성하면서 불교가 지성인의 정신적 안식처로 선택되고 있다.

호주에서 한국불교는 1984년 중국사찰에서 법회를 최초로 회향한 이후 줄곧 발전을 거듭했다. 지금은 시드니에 정법사(주지 기후스님) 관음사 보문사 등 조계종 산하 3개 사찰이 있고 브리스베인에는 금강사가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1848년 중국의 광산노동자들이 호주의 골드러시에 합류하면서부터다. 당시 아시아계 이주민의 신앙생활은 호주인들 눈에 충격으로 비쳐 소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가 생겨나게 하는 빌미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대부분 불교신자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인도차이나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돼 불교의 교세가 급속히 커지는 등 전환기를 맞이했다. 1980년에는 베트남 승려들이 입국해 베트남 신도들을 위한 별도의 사찰을 건립하면서 호주 불교는 소수민족간의 연합체로 발전했다.

〈욱〉



◇대전지역불자들의 문화공간인 녹야원 및 불교도서관이 지난 5일 개원됐다.

대전 녹야원 5일 개원

불교도서관·청소년 참선법회등 운영

청소년과 대학생불자들을 위한 법회공간 녹야원과 2만여권의 불교서적을 구비한 불교전문도서관이 지난 5일 대전에 문을 열었다.

이날 녹야원및 불교도서관 개원법회에는 대전사암련회장 현수스님 부회장 현광스님 원효사상연구회장 실재열교수 대한불교법사회 이경의 총무이사 청정회회장 강정진법사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지역불교 발전을 서원했다.

녹야원 초대원장 박형권법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대불련의 수행공간과 지역불자들을 위한 생활속의 불교문화공간 불교도서관을 마련한 만큼 정법포교에 매진하겠다"며 "녹야원운영은 재정공개를 원칙으로 일요법회를 활성화하고 초심자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야원및 불교도서관은 10여년전부터 추진, 5억여원의 재원을 들여 1백6평 부지에 건평 65평의 포교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불교도서관은 팔만대장경등 경전류와 불교문학 어린이도서 동양철학 서양철학등 다양한 종류의 불교서적 2만권과 4백여종의 불교비디오 오디오테잎등 종합포교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춘 지역불교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녹야원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법회 중등부법회 어린이법회가 열리며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강정진법사가 지도하는 참선법회가 개최된다.

한편 대법당에는 가로 270cm 세로180cm크기의 영산회상도 금리탱화(원미희 작)가 점안됐으며 2월경 인간문화재 박찬수씨 작의 목불좌상이 안치될 예정이다.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문화재 안내판

"… 이 석불감 쌍배불좌상은 골짜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는 각기 탑이 1기씩 놓여 있어서 야외불당의 주존불 구실을 하고 있다. 불감은 팔작지붕 형태의 지붕을 갖추고 그위에 용마루 치미등이 모각되어…"

천불천탑의 신비가 안개처럼 어려있는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보물 제797호)의 안내판 내용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등을 맞댄 형태의 두 부처님의 투박하면서도 이색적인 모습을 연상하기 어렵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안내판은 대부분이 이처럼 어려운 한자투와 전문용어 투성이에다가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되어있어, 안내문을 읽으면서 그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늘어나기 보다는 도리어 짜증이 나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한결같이 사각의 알루미늄판이라 그윽하면서도 아름다운 문화재와는 그 분위기가 전혀 맞지않는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성보의 경우 불교적인 내용까지도 함축해 알려줘야 하는데 사찰의 문화재 안내판은 천편일률적이다.

관광객들이나 참배객들은 열심히 안내판을 들여다보며 뭔가 얻고자 하지만 돌아갈 때 마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포장의 중요성, 광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첨단비디오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문화재 안내판만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횡포가 농후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렇게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안내판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바뀔 모양이다. 문체부는 전국에 설치된 문화재안내판 총 5355건에 대해 경주지역부터 차례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순화정비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차제에 문화재안내판이 누구나 얼른 이해하기 쉬운 대중성있는 문장으로 그리고 모양에서도 천편일률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또 문화재의 특성에 잘 어울리는 개성과 참신함을 갖췄으면 한다.

또 사찰문화재일 경우 안내판에 불교적 내용이 녹아들어 불교길라잡이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종단과 사찰차원의 관심과 치밀한 준비도 요구된다.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현불뉴스

15일 재가단체 신년하례

재가단체 신년하례법회가 15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봉행된다. 이 하례법회는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윤)와 한국불교재가회의(공동대표 서돈각) 한국재가불자연합(회장 안동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가 공동초청하는 형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각종단 총무원장과 신행단체 대표, 정각회원과 관·재계불자 등 8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악랜드개발 백지화

금산사주변 모악랜드 개발사업이 대단위 위락시설 백지화선에서 해결됐다.

금산사 모악랜드대책위원회(위원장 도영)는 구랍 26일 김제시장실에서 김제시와 회의를 갖고 호텔의 경우 국민호텔에서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시설공사가 완료된 썰매장을 제외한 청룡열차등 대단위 위락시설은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고창 선운사와 정읍 내장사주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대단위 위락시설공사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천공단 조성반대 성명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천공단 조성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인 평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을 살리는 것은 지역간의 이기나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생명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종교를 초월하여 펴나갈 것"을 결의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지난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위천공단저지 낙동강 살리기 범시민 항쟁대회'를 가졌다.

천관사 정밀지표조사

전남 장흥군이 최근 전남도비의 지원을 받아 순천대박물관에 정밀지표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화엄종의 개창지로 알려진 장흥 천관사가 옛모습을 되찾게 됐다. 10월 완료되는 지표조사에 따라 장흥군은 천관사의 옛 가람지를 토대로 복원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천관사는 통일신라 애장왕대에 창건된 사찰로 보물 795호인 3층석탑과 도지정문화재인 석등 오층석탑 목관 불화 등 귀중한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

서 전원장 활동재개

지난 94년 조계종 중단개혁으로 물러난 서의현 전총무원장이 최근 활동을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 전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고등학교 앞에 중흥사 분원을 개원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이 사무실에는 원두 도각스님과 서 전원장시봉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원장은 94년 당시 개혁회의에 의해 체탈도첩됐다.

교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사찰생태기행 생명사상 체험"

'맑고 향기롭게', 15일 동학사일대서 두레생태기행, 매월 환경운동 전개

'생태기행'이 새로운 환경운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태기행은 고발 위주 또는 구호성 환경운동에서 불자들 스스로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을 직접 답사,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명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환경교육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환경운동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맑고향기롭게모임과 두레문화기행. 맑고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은 15일 동학사 일대 생태기행을 시작으로 격월로 '사찰환경생태기행'을 실시한다.

맑고향기롭게 모임 김자경실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및 훼손, 파괴가 급기야 산사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돌아보며 생태계의 이치를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02)741-4696.

두레생태기행(대표 김재일)은 구랍 14~15일 해인골프장 건설예정지를 포함한 해인사 일대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남대 김용식교수 등 생태·환경전문가들의 안내로 생태기행을 실시했다.

생태기행에 참가했던 김민선양(대원외국어고 3년)은 "소나무 한 그루에도 나름대로의 진지한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설명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며 해인골프장 건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두레생태기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전국의 주요사찰 일대를 포함한 환경파괴 현장을 답사하는 생태기행을 실시한다. 02)712-5812~3.

조계종 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찰과 개발업자 또는 자치단체와 환경분쟁을 겪고있는 사찰은 40곳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전통사찰이다. 〈정성운 기자〉

"노동법 철회" 항의집회 잇따라

전국승가회등 13개단체

여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기습처리에 따른 불교계의 항의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등 불교 13개 연합단체로 구성된 불교비상시국회의(공동의장 청화외 11인)는 구랍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시국법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이 철회될 때까지 정권퇴진 운동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시국법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탑골공원까지 침묵행진을 시도, 공권력과의 30여분에 걸친 몸싸움을 벌였다.

또 불교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0일, 11일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범국민대회를 종각사거리와 탑골공원에서 전개하고, 13일 조계사에서 민주수호를 위한 제2차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등 5개 종교인들로 구성된 전북종교인협의회(불교계대표 지원)도 지난 13일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봉행했다.



◇13개 연합단체가 참여한 '반민주악법 저지를 위한 불교시국법회'에서 저지하는 경찰과 300여분 몸싸움이 있었다.

"번뇌서 벗어나 참된 삶 찾자"

전국사암 성도절행사…철야정진 제등행렬 등 다채

16일(음력 12월8일) 성도재일을 맞아 전국의 각 사암에서는 성도를 찬탄하는 철야용맹정진 법회를 비롯 각종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금산사(주지 도영)는 오는 15일 전주 반공회관에서 성도절 연합대법회를 봉행, 부처님의 성도를 경축하며 신행단체들간의 화합을 다진다. 이번 법회는 박광서교수(서강대)초청 특별강연(미래사회의 불교)을 비롯 육법공양, 승무, 연합합창제,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봉축위원회(위원장 무공스님·동화사주지)를 구성, 16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성도절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물놀이, 불자연예인초청공연, 대구연합합창단공연 등 성도의 참뜻을 되새기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성도절 특별정진주간을 설정하고 참선과 법문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봉행한다. 대혜스님(직지사 교무국장)은 "모든 불자들이 성도의 뜻을 되새기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삶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불자들은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조계사는 문화예술제, 강남 구룡사(주지 정우)는 어린이 불자들의 사물놀이 공연,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탑돌이,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수계대법회를 각각 봉행한다.

영남불교대 '10만배 발심기도'

4월30일까지 100일간…보살도실천 발원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지난 9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백일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동 대학 법당에서 천배씩 '공동체사회를 위한 10만배 대발심기도'를 봉행한다.

나라의 경제회복과 자아성찰을 기원하게 될 이 기도회는 △자연환경보존 △과소비 근절 및 근검절약 △이웃에 봉사하는 보살도실천 △우리 농수산물을 비롯 국산품 애용 등 5개항으로 된 실천강령도 마련해 놓고 있다.

우학스님은 "새해를 맞아 사회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기위한 기원의 마음을 모으고자 본 법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기도법회를 통해 교육생들은 신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리수마을 이사장 18일 이사회서 선임

시현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공석인 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은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향후 운영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리수마을 이사 영담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을 오는 18일 정기이사회까지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했다. 또 제원(보리수마을 원장) 법등(도리사 주지) 정각(도솔암 주지) 선용(심우사 주지)스님을 새 이사로 추천했다.

시현스님 4일 입적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 이사장 시현스님이 지난 4일 교통사고로 입적했다. 발인은 지난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btn 사장 태응스님을 비롯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수선원에서 있었다.

스님은 1960년 성수스님을 은사로 득도, 6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또 석수암주지, 법수선원장, (사)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무종교인 불교 호감도 월등

공보처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불자 종교활동 중요성 인식 낮아 기독교인 타종교에 배타적 성향

종교를 갖고있지 않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장 호감가는 종교로 불교(31%)를 꼽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보처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 4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의식과·가치관'에 대한 정부기관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종교에 관한 의식조사결과 현재 종교가 없는 응답자 6백58명은 특별히 호감가는 종교로 불교 31%, 천주교 15.2%, 기독교 10.4%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기독교가 30대이하 여성의 호감도가 높은데 비해 불교는 인구특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루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64.1%)와 자신과 가족친지의 안녕을 위해서(16.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한국인들은 현세에서의 평안과 복락을 지향하는 의식에 기반하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종교에 대한 수용도를 가늠해보는 '종교와 진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대다수(75.3%)의 응답자가 '이 세상의 모든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진리의 종교는 하나뿐'이라는 배타적 태도(1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교형태별로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가 86.4%의 높은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독교가 41.2%로 상대적으로 강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반면 종교적 행동의 빈도는 기독교인의 45.4%가 하루에 1번 이상인데 비해 불교인은 1주일에 1회미만이 64.3%로 나타났다. 종교생활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은 종교가 중요하다는 대답이 91.3%였으며, 불교인의 36.7%는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스스로의 신앙심 평가도 기독교인은 62.5%가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응답했으나 불교인의 63.6%는 신앙심이 깊지않다고 응답해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생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우 기자〉

불교국가에 의약품보내기

21일 운동본부 창립…클리닉센터 설립 의료활동도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통한 새로운 국제포교가 전개될 전망이다.

불교국가 의약품 보내기 운동본부(대표 황면스님·전 조계종 기획국장)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1일 창립식을 갖고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각 1개사찰에 클리닉 센터를 설립해 의료 및 국제포교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보내기 운동본부는 각 클리닉 센터마다 전문의(봉사의사)를 상주시키고 년 3~4회에 걸쳐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한 포교활동을 전개한다. 지원방법으로는 국내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항생제, 지사제, 해열제, 구충제, 외상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지원하고 각국의 클리닉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 전·현직 불자 의료진을 파견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기도 설치해 열악한 여건의 스님이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의료봉사를 제공한다는 것. 이밖에도 의약품보내기 운동본부는 동남아 불교국가 뿐만 아니라 국내의 무의촌인 낙도와 산골 암자 등에 비상약품 구급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황면스님은 "의료활동을 통한 포교활동은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며 "현재는 동남아 불교국가로 한정했지만 향후 전세계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참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듣는다해도 그것을 다시 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어야 마침내 대장부다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기경옹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퇴 빈뇨, 진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3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오〉

〈2〉 미용효능



● 얼굴피부숙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및 미사지 효과
●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수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 제96-16268호

● 규격 : 높이 27cm × 직경 33cm
●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강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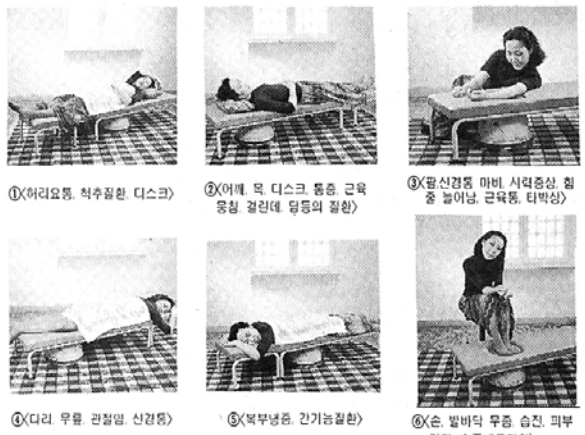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벌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 「동의보감 탕액편권3」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데, 당등의 질환〉 ③〈팔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송파 : 417-8922 강북 : 902-2430 증로 : 747-7033 성북 : 942-6430 영등포 : 782-6080 반포 : 597-7581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34-4211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경북지역 울산 : (0522)74-7536 울주구 : (0522)85-1284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

건강백세 ㊱

췌장 ①

췌장은 취장이라고도 부르나 실은 같은 장기이다.

예전에는 그 기능이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고 일반인은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다. 다른 장기와 달리 고형적(固型的)인 외양을 가지지 않고 폐(肺) 좌하(左下)에 비장, 위와 척추 안쪽 깊숙이 흐물흐물한 상태로 위치하고 있어서 정밀도가 결여된 예전의 해부술로는 그 존재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었다.

췌장은 췌액(膵液)을 분비하여 소화에 관여함과 아울러 '인슐린'을 분비하여 음식등으로 섭취된 탄수화물 즉 당류를 '글라이고젠'으로 변환시켜 간장에 저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슐린'의 작용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있기전까지는 당뇨병은 전혀 불치로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그래서 20~30년전 까지만 해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인 망막손상으로 인한 실명, 발가락 등의 궤양에 의한 상실이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이 많았었다. 이제는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전(機轉)과 대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비례하여 우리 주위에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화 되어 잘 알고 있다시피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부전(分泌不全)으로 인하여, 섭취된 당류가 '글라이고젠'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혈중에 그대로 유입되어 혈당을 높이게 되어 일어난다. 뚜렷한 유전인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당히 유전적 소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족력(家族歷)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불합리한 식생활과 과긴장된 환경에서도 발생하며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는 훨씬 이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

소아의 경우는 주로 선천성이라고 볼수 있다. 그외에 암이나 종양등으로 인한 췌장조직의 변성이나 괴사로 인한 경우도 있다. 혈당이 높아지면 기관이나 조직의 말초부위(末梢部位) 즉 모세혈관의 많은 부분이 먼저 당으로 인한 파괴가 일어나며 심해질 경우에는 절단해야하는 고통이 따른다. 또한 조직재생이 어려워 상처가 생겼을때 회복이 느리다.

식사후에 뇨당(尿糖)이 상승되어 소변배설을 통해 당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므로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배뇨를 통한 당류의 급격한 배설은 저혈당 증상을 야기시켜 인체 생명현상의 유지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진땀이 나고 몸이 떨리거나 체온이 강하되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뇌세포 손상은 회복불능으로 마비나 기억상실, 심할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당뇨환자에게는 기본적 대응교육이 필요하며 저혈당 응급상태에서는 경소 가장 해롭다는 당분도 반드시 소량 섭취해야 한다는 이론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식생활 불량·긴장 지나치면 당뇨 유발
저혈당 증상일때 당분 소량섭취 해야



새싹들에게 주는 약 ①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교만하고 성내고 사치하고… 그 업은
40중반에 병마로 찾아들었다
근육결핵으로 유서를 쓰며 살던중…

저는 불교를 잘 알지 못하면서 친정어머니를 따라 조그만 절에 1년에 한번 초파일에 등을 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미신 같다는 생각을 하며 부처님 앞에 건방지게 앉아 "우상이야, 나는 나중에 성당이나 교회에 갈꺼야"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잘났었는지 아상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복짓는 일은 하지않고 교만하고 성내고 사치하고… 죄받을 일만 골라 했으니, 그 모든 업이 병마가 되어 찾아들었습니다.

84년 겨울방학을 하던 날 우연히 손목이 순색으로 붓기 시작해서 수소문끝에 잘 고친다는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주사를 잘못 맞아 근육 결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병명을 찾지 못해 1년 동안을 병만 키우고 난 후에야 서울대학병원에서 바른 진단을 해 입원, 수술, 재수술을 하면서 결핵약을 3년이나 먹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86년 대학 입시를 앞둔 큰아들을 앞에 놓고 매일매일 유서를 써 가며 생활하던 중 재수술하고 퇴원한지 1주일되던 날 고마운 두 친구의 권유로 봉은사 삼천배 기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약만 가지곤 고칠 수 없을 것 같으니 부처님께 매달려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사십 중반. 저는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죽는다고 생각하니 두 아들의 얼굴이 크게 떠오르며 어머니 노릇 못한 것이 미안해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들 대학 입학이라도 시켜 놓고 가면 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친구를 따라 봉은사에 갔습니다. 삼배도 제대로 안 해본 저는 치마를 입고 절할 준비도 없이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병객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안됐네, 무슨 병이길래?" 수군수군 쳐다보며 구경들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마운 두 친구는 자기들의 방석을 하나씩 빼고 옆자리를 좁혀서 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을 뵙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부처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우연병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두 아이들이 기운을 잃어 공부를 놓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대학 입학하는 것만 보아도 원이 없겠습니다. 부처님 저 퇴원한지 1주일밖에 안 되는데 삼천배는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천배만 하더라도 살려주세요."하며 어처구니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 7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삼천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을 치는 스님, 염주를 돌리는 스님, 수천명의 많은 신도들은 그 북소리에 맞추어 절을 했습니다. 환희심이 났습니다. 20분하고 10분 쉬고, 40분하고 10분 쉬고… 1000배가 끝날 무렵, 원탁에 계시던 스님께서 처참한 제 모습을 보셨던지, "노약자는 앉아서 반배 하세요.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반배도 한배로 쳐 주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천배를 마치고 반배로 앉아서 하다가 좀더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데 꾀를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부처님 삼백배만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하는 기도를 드린 후 다시 삼백배를 마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환희심과 함께 후련한 한숨이 길게 내 쉬어지면서 "나는 살았어!"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반배씩 채워 새벽 세시가 지나서 삼천배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기진 맥진한 상태로 간단하게 새벽 예불을 올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 해 사람 구실 못하고 있는 저를, 식구 모두가 지친 상태로 한 삼개월 후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저에게 최선을 다한 동정 어린 병수발을 하고 있던 터라 살아보겠다고 철야 삼천배 기도하고 온 제가 불쌍하게 보였던지 남편은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제 곧 나을꺼야. 어서 푹 쉬어요"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영 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 The man who has overcome everything, who knows everything, who is possessed of a good understanding, undefiled in all things, abandoning everything, liberated in the destruction of desire, him the wise style a Muni.

모든 것을 이기고 온갖 것을 알며, 지극히 총명하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애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The man who has the strength of understanding, is endowed with virtue and holy works, is composed, delights in meditation, is thoughtful, free from ties, free from harshness, and free from passion, him the wise style a Muni.

지혜의 힘이 있고 부여된 계율과 맵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고 선정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㊲

♦ The Muni that wanders solitarily, the zealous, that is not shaken by blame and praise, like a lion not trembling at noises, like the wind not caught in a net, like a lotus not soiled by water, leading others, not led by others, him the wise style a Muni.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Whossever becomes firm as the post in a bathing-place, in whom others acknowledge propriety of speech, who is free from passion, and with well-composed senses, such a one the wise style a Muni.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수영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연하고, 애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잘 가라앉힌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undefiled (a)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chaste)
*vinic (n) 계율, 덕행
*compose (v) (마음을)가라앉히다
*solitarily (ad) 홀로 숨을하게
*tremble (v) (무서워서)벌벌 떨다
*lotus (n) 연꽃
*soil (n) 오물, 더러워진 상태

오종욱 기자

불법 佛法, 바르게 알아야 크게 쓸 수 있다

불교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수행관 확립의 바탕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강경 대강좌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금강경 대강좌

괄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신국판 360쪽
이재열 지음
여시아문 펴냄
값 8,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